

#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 두 번째 이야기 |

그리움의 향기 그리고 추억의 조각  
잔잔한 바람에 띄우는 하늘 소망 이야기



(재)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Christian Memorial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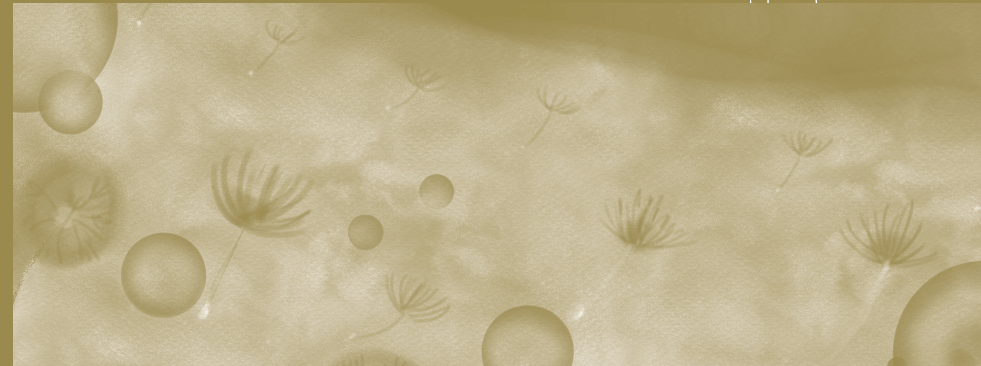
#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 두 번째 이야기 |

#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 두 번째 이야기 |

그리움의 향기 그리고 추억의 조각  
잔잔한 바람에 띄우는 하늘 소망 이야기



(재)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Christian Memorial Park

##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두 번째 이야기)를 발간하며



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추모공원 방문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요즘은 우리 추모공원도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 종료되고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년 전 우리는 고인에게 보내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모아 작은 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추모공원)를 이용하시는 유가족분들이 고인을 그리워하며 직접 작성한 정성이 가득 담긴 공모작 중에서 엄선된 40편의 글을 모아 발간한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이라는 제목의 첫 모음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2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사연 40편을 모아

두 번째 모음집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두 번째 이야기)에 실린 글들이 모두 이별의 아픔과 사연이 있는 만큼 경중을 따져 순위를 매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감동의 크기를 재기보다는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한 줄, 한 줄에 공감하면서 게재할 글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제출해주신 글들을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모두 채택하지 못 함에 아쉬움을 갖고, 다음에는 좀 더 확장된 지면으로 더 많은 사연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기꺼이 내어주신 유가족분들과 책자 발행에 힘을 보태주신 교회성장연구소에 감사를 드리면서 출간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으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분께 소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2021. 6

(재)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이사장 김윤배 장로

# CONTENTS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두 번째 이야기)를 발간하며 김윤배 4

## 1부 | 시   하나님의 품에 안긴 당신을 위한 시

아빠의 손 이수혜   소망상(2020)	10
할머니의 남편, 나의 할아버지 서형호   화평상(2020)	12
너무 소중한 당신께 심미정   화평상(2020)	14
동생을 보내며 엄선민   화평상(2020)	17
할머니의 창문 이예리   화평상(2020)	19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박정훈   화평상(2020)	21
사랑하는 내 딸 나영에게 이상분   화평상(2021)	23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 홍옥순   화평상(2021)	25

## 2부 | 글   천국으로 띄우는 그리움의 글

작은 예수님 우리 아들 오정환   사랑상(2020)	30
하늘나라 셋별이 된 아들 재형에게 전상열   소망상(2020)	35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실 하나님 김진주   소망상(2020)	38
아빠, 너무 오랜만에 불러 봐요 김슬기   믿음상(2020)	41
영원한 나의 하늘, 파파 국민아   믿음상(2020)	44
아빠, 사랑해! 백향은   믿음상(2020)	46
여보, 나는 행복합니다 이진예   믿음상(2020)	49
아버님 전상서 표윤상   믿음상(2020)	53
좋은 사람이 될게요 장다은   화평상(2020)	56
보고 싶은 그리운 엄마께 강정옥   화평상(2020)	59

보고 싶은 엄마에게 최은정   화평상(2020)	62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엄마 조혜경   화평상(2020)	65
하늘나라로 보내는 편지 이순자   화평상(2020)	69
너무 사랑해서 늘 보고 싶은 우리 아빤 이진희   화평상(2020)	73
갈수록 더 그리운 어머니에게 - 어머니의 흔적- 박춘희   사랑상(2021)	75
서울덕, 울엄마 임혜선   소망상(2021)	79
벚꽃 잎은 꽃비가 되어 내리고... 조혜경   소망상(2021)	85
할머니의 코카콜라 이예나   소망상(2021)	90
보고 싶은 어머니 김병국   믿음상(2021)	95
Dear, 아빠 백향은   믿음상(2021)	97
오늘은 4월 1일이예요... 예정대로라면 오늘 출근하는 날인데... 손현영   믿음상(2021)	100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입니다 김하린   믿음상(2021)	103
하나의 밀알이 되어 이혜진   믿음상(2021)	105
해 담는 다리 박지연   화평상(2021)	108
하늘로 훌연히 떠난 당신 현기숙   화평상(2021)	110
메모리얼파크가 주는 감사함 문소연   화평상(2021)	112
그립고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에게 최경재   화평상(2021)	114
우리의 봄을 기다리며 김선화   화평상(2021)	117
하늘의 멋진 경찰관, 우리 할아버지께 손녀가 보내는 편지 김윤명   화평상(2021)	119
사랑하는 우리 아빠 성수 할아버지 박상희   화평상(2021)	122
그립고 그리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이지은   화평상(2021)	124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순자   화평상(2021)	126
심사평 (2020, 2021) 김선옥 · 천서봉	130



1

시

하나님의 품에 안긴  
당신을 위한 시



## 아빠의 손

이수혜 소망상

늘듬지했던 아빠의 손

우릴 품어주셨던 두툼한 손 예쁘고 정갈한 필체를 자랑하던  
섬세한 손 그 손을 사랑합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그 손은  
지금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한 당신의 손을 사랑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큰딸의 손을 꼬옥 잡고 결혼행진곡에 맞추어 입  
장하던 당신의 손을 사랑합니다.  
그 큰딸이 아기를 낳아 손녀를 품에 안고 조금이라도 다칠까  
조심조심하며 함박웃음을 짓던 당신의 손을 사랑합니다.  
사회생활에 지치고 힘든 둘째 딸을 위로하며 다독겨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적어주던  
당신의 손을 사랑합니다.

아내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던  
당신의 손을 사랑합니다.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었던 당신의 손을 사랑합니다.

약을 한 움큼 손에 놓고 이걸 먹고 다 나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던 당신의 손을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열심을 내었던  
당신의 손이... 주님께 향해 기도의 손으로 옮겨질 때...  
많이 울었고 많이 기뻐했습니다.

간절히 두 손을 모아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는  
당신의 간절한 그 두 손을 사랑합니다.

누워만 있을 때,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지만...  
손으로 만지며 힘을 주어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하던  
그 두 손을 나는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아빠.....

천국에서 그 두 손 다시 잡을 수 있게 기다려줘요...



## 할머니의 남편, 나의 할아버지

서형호 화평상

여보 반찬거리 마련하러  
여름날 냉동실에 가둬 놓은 밴댕이,  
아직 두 눈 부릅뜨고

몇 달 전 주문한 한약들  
뜯지도 않은 채 썩어 썩인 먼지 위로,  
유통기한만 3년 남아있어요.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 하기만 한데  
이제 우유 통에는 신문도 없고,  
당신 방에서는 뉴스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긴긴 해가 들어왔다 이내 지고  
달무리마저 물러가면,

방안에 가득 찬 어스름 한번  
십자가 옆 당신 사진 한번  
괜히 당신 침대에도 한번 누워 봤어요.

투닥투닥 쓴살같이 흐른 몇 십 년의 세월  
오늘 나의 하루와 같이 빨랐노라면,  
당신은 천국에서 다시 돌아보는지  
하나님 곁에서 잘 있는 건지

주일 아침,  
당신 손자 당신 방에 들어왔어요.  
이제 안산에서 나랑 지내겠대요.

방도 즐겁게 새 단장을 해요.  
작년 8월 달력을 떼고,  
폭 꺼진 침대를 새로 뒤집고,  
십자가 같이 생긴 청소기로  
묵은 죄, 묵은 때 모두 깨끗이 씻겨 내려가요.



## 너무 소중한 당신께

심미정 화평상

너무 그리운 남편 사랑하는 여보  
하늘가는 밝은 길 걸어간  
당신을 보낸 지 5개월 되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여 여러 가지  
운동과 안수집사 총무로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  
세상에서 즐기던 술 담배 끊고  
주님 전에서 섬기는 기쁨으로  
심령천국 교회천국 가정천국을 누리며 살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소장암 4기...  
간까지 전이되어 3개월 남았다는 사형선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려주세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 속에서  
애원하며 매달린 시간들.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목놓아 부르던 주님.....

시한부 생명을 주님께서서 2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영화처럼 제 영혼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힘도 용기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부활생명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묘약으로  
하늘비밀을 심장에 박혀 놓으셨지요.

주님 만난 후 가장 좋아하는 찬송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양하던 당신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  
이 찬양이 귓가에 맴돌아 통곡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원 굴에서 주님을 눈물로 목놓아 부르던  
사랑하는 당신을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에 모셨네요.  
아픔 없고 눈물 없는 천국…….  
주님 품 안에서 계시니 얼마나 행복할까?

이곳에 오면 위로받고 하늘소망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곳  
다시 만날 소망을 꿈꾸는 곳이다.

여보!!  
두 아들과 주어진 삶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돌아갑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엄선민 화평상

꺼져가는 등대는 다시 켤 수 있다 하되  
쓰러지는 생명은 어찌하면 좋을고나,  
나는 날은 모르지만 가는 날을 잡고 나니  
하루하루 서럽도다.

한배에서 나고 자라 먼저 난 건 나인데  
네가 먼저 간다 하니 세상일은 알 수 없다.

주님이 뜻하신 일 그 누가 막을 소나  
가는 그길 평안하게 밝은 빛을 향해가길  
간절히 기도하며 천국에서 만나자.

언제 기적이 오는가 하였더니  
이미 와 있었도다.

어머니 눈물 굽이굽이 냇가를 삼고 엮고  
예수님 바라보며 편안한 눈길 앞에  
죽음의 권세는 지고 말았구나.  
천국 문 두드리며 예수님 곁에 서자 하는  
네 발 앞에 기적 있었도다.

고마운 현생의 육신을 뒤로하고  
영혼 먼저 떠나가니  
사십 평생 알고 살던 네 모습이 그인가 하도다.  
남은 이는 슬퍼하나 또한 천국 가는 네 모습 보며  
기뻐하니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니이다.



## 할머니의 창문

이예리 화평상

할머니의 봄은 언제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다.

얼음이 녹고 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예쁜 옷을 차려입고 나가서 놀곤 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아이 예쁘다. 봄 꽃갈네”라고  
내 마음을 한껏 부풀려주셨다.

온갖 꽃향기에,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소리에,  
빈틈없이 내리는 햇살에  
내가 신이 나 다니는 동안  
할머니의 봄은 침대 옆 작은 창문을 넘어서야만  
겨우 와 닿을 수 있었을 게다.

이제야 할머니 침대에 앉아 창 너머를 본다.  
따뜻한 봄 햇살이 충분히 들어왔을까,  
진한 녹내음은 잘 넘어왔을까,  
무르익은 단풍이 살짝이라도 보였을까,  
하얀 눈발에 스민 캐롤의 설렘이 희미하게나마 들렸을까.  
할머니의 창문은 이 좋은 계절들이 들어오기에 충분 했을까….

그래도 할머니,  
차고 시린 병원 침대 말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마련한 할머니 침대에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나물반찬이랑  
질은 쌀밥 냄새가 매일 나는 따뜻한 집에서  
헤어지던 가을 그 날까지 같이 있었다는 게  
작고 큰 위로가 돼요.

비록 저 작은 창으로 비친 할머니의 봄은  
나의 봄보다 조금 늦고 열었겠지만  
열 번도 넘는 봄을 함께 들었으니 그걸로 행복해 할게요.

나중 언젠가 더 아름다운 봄 하늘 아래에 함께 서길.



##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박정훈 화평상

15년 전 3월의 봄

숨어있던 새싹들이 피어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봄의 기운들이 살아날 때, 내 나이 스물여섯 약관의 나이를 훨씬 지나 혈기가 가장 왕성할 때, 하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지천명’까지도 못 와 보시고 마흔 아홉에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내 나이 마흔 하나, 하루는 길고 날은 짧고 세월은 벌써 이만큼이나 지났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보름도 안 지난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임종 직전 찬양 부르시며 가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 주셨다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이쁘고 착한 아내 만나 결혼하여 토끼 같은 두 자식들 기르고 남은 인생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소개시켜 천국에 보내야지 마음먹고 걸어온 주의 길

이제 한 달 후면 목사 안수 받아 주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계십니다.

어머니는 혼자가 편하신가 봅니다.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어머니는 그렇게 혼자 계십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지금 필요합니다.

15년 세월 언제 가장 필요했나 생각해보니 지금이 그렇습니다.

여느 자식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 가장 당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우리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아빠 나도 아빠 있는 곳에 어서 가고 싶어.

그곳에서 아빠랑 헤어지지 않고 아빠 무릎에 머리대고 영원히  
쉬고 싶어.

살아생전 지독하게 외롭게 만든 죄

내가 지금 고스란히 받아 아내도 자식도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당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자리는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네.

곧 다시 우리 만납시다.

그때는 아버지 업고 다니며 아들 노릇 제대로 하리다.



## 사랑하는 내 딸 나영에게

이상분 화평상

오늘 하루도 지나가고 있네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면

울 딸의 기억이 멀어져가는 게 서운하고 안타깝네

하늘의 세상에서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불러보고 만져보고 안아보고 싶은 내 딸 내 새끼 나영  
보고 싶다.

벌써 울 딸이 떠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네

울 딸이 없는 빈자리

들을 수 없는 목소리, 체취,

뭉든지 그림다.

눈이 오나 비가 내리면

하늘에 있는 울 딸이 슬퍼서 아니

이승이 그리워서 내리는 것만 같아서  
한 번 더 밖을 더 쳐다보게 되네.

우리 집 정원에 꽃들이 한창 만발하네.  
꽃들이 웃으면서  
엄마 나랑 같이 놀아  
하고 손짓하는 것만 같네.

늘상 열려있는 엄마의 마음  
얘기하고 싶고  
여행가고 싶고  
머리 식히고 싶으면  
언제든 꿈속에서만이라도 즐기자.

늘 환영하니깐  
또 사랑하고 있으니깐

너무 빨리 엄마와 가족을 두고  
홀로 하늘 여행 중인 딸에게



##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

 홍옥순 화평상

사랑하는 나의 반쪽 기복 씨,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요.  
너무 좋아서 혹시 나 잊지나 않을까?

당신에 떠나기 하루 전에 문을 가르키며 길을 준비하라  
한 말이 마지막이고 이별이 될 줄이야.

내가 잊어버릴까 봐 발렌타인데이 초콜렛도 못 받고  
천국으로 이사 갔나요.  
또 그 해 겨울은 별로 눈이 오지 않았는데,  
하늘에서는 축하하는 함박눈이 내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무들은 아름다웠고 온 천지가 눈으로 덮여  
깨끗한 마음을 가진  
순수한 당신을 떠올리며 감사하며 위로가 됐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같은 함박눈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첫째 딸 네 식구가 하나로 합쳐 화목한 가정으로  
변했고 넓은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빠가 가면서 맺어주었다고 말들 합니다.  
고맙습니다.

몸은 떨어져있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삼오제 날 당신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서  
당신 대신 당신의 마음을 담아 삼행시를 낭독했습니다.

아: 이사 간대 나는 천국으로  
가: 기뻐하라 자녀들아  
복: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라.

또 시도 썼어요.

그날

당신이 떠나는 날  
그날은 발렌타인데이  
달콤한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날 천국으로 가셨나요.  
장례식 그날  
하늘도 축하하며 함박눈이 내렸어요.  
나무들 위에 소복소복 눈꽃송이 되어 웃고 있어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아름답게 장식도 하고요.  
당신의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하늘도 알고 축복하네요.  
내가 당신 만나러 가는 날  
그날은 언제일까  
너무 늙어 쪼글쪼글 하면 어떡하지? 예뻐야 할 텐데...  
만나면 내 뭇까지 살아주어서 고맙소, 수고했소, 인아주겠지.

당신께 50년 만에 쓰는 편지, 연애편지는 설레지만  
더 마음이 울컥하네요.



2

글

천국으로 띄우는  
그리움의 글



## 작은 예수님 우리 아들

오정환 사랑상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떨어진 꽃잎들이 비바람에 날리는 걸 보니 또 4월이 가고 있는 것 같구나. 4월은 너의 탄생과 떠남, 엄마아빠 결혼기념일, 부족하게 태어난 너를 눈감으실 때까지 걱정하셨던 할머니의 죽음, 이 모든 것이 같이 있어서 축복과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아빠는 4월에 다 겪으면서 보내.

올해는 그래도 생일날 너한테 가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줄 수 있을 정도로 작년보다 조금은 나아졌어. 우리 가족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너를 잃은 슬픔에서 조금씩 치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빠치지 마! 그렇다고 너를 아주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니니까. 이제는 조금씩은 담담하게 너에 대한 추억 얘기도 하고 그래.

세훈아!

늦둥이 동생 예은이가 벌써 중1이 되었어.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의 준비도 할 겨를 없이 급하게 떠난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숨을 쉬며 힘들어하던 너의 모습을 보고 예은이는 한동안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너를 잃은 슬픔에 갇혔었어.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사가 41장 10절 말씀을 몇 번을 읽어야지만 겨우 잠이 들 정도로 힘들어했어. 지금은 키도 많이 크고 생각도 크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뭘 봐도 까르르 웃는 그 포래의 소녀가 되어가고 있단다.

세훈아!

20년 동안 부족하기만 한 엄마아빠 만나서 많이 힘들었지.

가족들의 축복 속에 건강하게 태어나 6개월쯤에 뇌에 문제가 있는 장애로 몸의 모든 기능의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말도 못 하고, 자주 본 식구들만 겨우 알아보는 지능으로 인해 엄마아빠 한번 못 불러보고 하고픈 것들도 표현 한번 못 하고 우는 것으로 대신하며 2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조금 커서는 화나면 심한 자해 행동으로 인해 1초라도 너를 혼자 둘 수가 없는 상황에 모든 가족이 너 잠들 때까지 긴장을 풀 수가 없었고 너의 기분에 따라 그날 우리 가족들 기분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정도로 매일 매일을 전쟁터 같이 보냈지만

그래도 기분 풀어지면 한 번씩 웃어 줄 때의 그 백만 불짜리 미소 덕분에 가족들 마음이 금방 풀어지곤 했지. 그때 아빠가 했던 말 기억나지? 이렇게 웃기만 해도 평생을 키울 수 있겠다고. 아빠는 너를 키우면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지만 너 태어난 걸 남한테 창피해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 이것만은 꼭 기억해줘!

네가 떠나간 그때 4월은 아빠가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를 하나님 믿어 보겠다고 나간 지 4개월쯤 되던 시기였어. 교회 나가면서 워낙 어릴 때 병원 생활을 많이 했기에 “우리 아들 병원 입원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가 기도 내용이었지. 그런데 교회 나간 지 4개월 만에 너를 그렇게 급하게 데려가신 엄청난 현실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매일을 보냈단다.

거의 매일을 교회에 가서 너 생각하며 울고 하나님께 “왜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했었어. 그 당시 하나님도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야. 그렇게 울며 기도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일 거야. 교회 담임목사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너를 누구에게 보내줄까 둘러보시다가 엄마아빠가 제일 잘 보살펴 줄 것 같아 보내 주신 거래. 그리고 너는 우리 집에 작은 예수님의

로 오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모두 구원하고, 이 땅에서의 너의 사명 다해서 아프지 않은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 아빠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빠가 그동안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왜요”라는 질문에 답을 얻은 것 같았어. 그때 믿음이 아빠 마음에 확 들어왔단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 다음으로 좋아하던 술도 끊고 그 시간에 성경책을 읽어. 그리고 아빠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아파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라고 CTS에서 하는 교회행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교회 대표로 간증을 하게 해 주셨어. 너도 그곳에 인터넷이 되면 유튜브로 보고 아빠가 잘했는지 평가해줘.

아빠도 너 보내고 같이 있을 때 못 준 것들로 인해 아직도 하루하루 힘들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떠한 감정의 흐트러짐도 없이 무덤덤하게 네 얘기 하는 날이 올까 봐 더 두려워. 아들!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믿음 생활하며 잘 버티고 있으니까.

세훈아!

아빠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하는 게 하나 있어. 이

세상 있는 동안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서의 사명 다하고 천국 올라갈 때 제일 먼저 건강한 우리 아들이 저번에 아빠 꿈에 와서 “아빠” 하고 두 번이나 불러주었던 그 목소리로 크게 “아빠” 하며 마중 나와 주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있을 때 학교 갈 때나 어디 갈 때마다 무겁던 너를 아빠가 항상 업고 다녔듯이 이번에는 네가 아빠 업고 아름다운 천국 여기저기 구경 시켜 주라. 그사이 혹시라도 아빠 얼굴 기억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프기 전 마지막 여행에서 작은 예수님으로 아빠에게 와준 우리 아들 사랑해!! 천국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2020년 4월 세훈이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날에



## 하늘나라 셋별이 된 아들 재형에게

전상열 소망상

황망하게 네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두 달이 되었구나. 그동안 하늘나라 천국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정말로 네가 많이 보고 싶다. 무심한 봄은 온천지에 꽃을 피우며 질퍽하게 밀려와 있지만 네가 없는 우리 마음속 세상은 아직도 엄동설한 찬바람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아쉬움의 눈물만 흘러내리는 회한의 시간이 연속되고 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 재형아!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런 기막힌 일이 어떻게 너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나? 감기 한 번 앓지 앓을 만큼 건강했던 네가 갑자기 찾아온 급성 패혈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처럼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다니 모든 것이 아직도 그저 꿈만 같다. 차라리 이게 꿈이었다면, 시간을 잠시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아빠는 있을 수 없는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언제나 든든했던 내 아들 재형아!

너를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보내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줄 아니?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너의 약혼자이며 나의 소중한 예비 며느리인 선화가 흘린 눈물은 강물이 되어 흐르고, 엄마아빠가 쏟아낸 아쉬움의 탄식 소리는 태산만큼 높이 쌓여 가고 있다. 네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네 모습이 아른거리고 현관을 들어서며 “저 왔어요~” 하던 반가웠던 네 목소리가 환청처럼 귀에 들려오곤 한다. 어디 그뿐이라. “저예용~” 하며 날아들던 카톡 소리는 그리움이 되어 귀에서 맴돌기도 한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 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네가 우리 곁을 떠난 후 엄마아빠는 가슴에 대못이 박힌 고통 속에서 계속 그리움의 피눈물만 흘리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재형아!

네가 쓰러지고 난 후 병원에 입원했던 7개월여의 힘들었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눈 앞에 펼쳐진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며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너는 죽기 살기로 투병을 했었지. 또한 너의 약혼자 선화와 엄마아빠 역시 너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하며 죽을힘을 다해 응

원을 했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너를 붙잡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았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크고 아프지만 그러나 어디 네가 겪었을 너의 엄청난 고통과 언감생심 비교나 될 수 있겠니? 스치는 바람결에도 쏟아지는 이 눈물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불리도 대답 없는 너를 그리워하며 울다가 뒤돌아서야 하는 이 슬픔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천국에서 너를 다시 만나고 나서야 이루어낼 수 있는 소망일 듯하다.

하늘나라 셋별이 된 우리 아들 재형아!

네가 내 둘째 아들로 태어나 딸 노릇까지 하면서 살아준 38년이라는 세월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 이제는 하늘나라 하나님 품속에서 반짝이는 셋별이 되어준 너를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선화와 엄마아빠가 함께 잘 참고 살아볼게. 우리 아들도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모든 고통들을 다 털어내 버리고 영롱한 하늘나라 셋별로 편히 쉬길 바란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 하나님 품속에서 꼭 다시 만나도록 하자. 사랑한다, 우리 아들 하늘만큼 땅만큼~!

2020년 4월 어느 봄날에 너를 보고 싶어 하는 아빠가



##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실 하나님

김진주 소망상

“아빠. 아빠는 힘들면 어떻게 해?”

“진주야 아빠는 기도해.”

“아니 그래도 사람이 정말 힘들면 어떻게 해?”

“그래도 기도해.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던 우리 아빠. 새벽기도 인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빠를 갑자기 데려가셨을 때, 우리 가족은 믿을 수 없었고 너무나도 슬펐어요. 작별 인사 한번 못하고 보낸 아빠가 우리는 지금도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의 설교가 듣고 싶고 기도가 듣고 싶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연약한 저는 때때로 아빠가 없는 저 자신의 삶을 살 아내기가 너무나도 시리고 두렵고 무서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을 대체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지?’라고요. 그러나 아

빠의 설교 노트에 쓰여 있던 이 글귀를 보며 저는 예수님만이 우리 최고의 위로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릴 돌보시고 채우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는 십자가를 볼 때,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글귀를 통해 확신했어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음을요. 그리고 이런 분께는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어요.

물론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서 당장의 천국만을 사모하기에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적 슬픔에 수도 없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대체 우린 언제 다시 재회할지 그때를 모르기에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심을 넘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기에, 지금의 아주 잠깐의 이 단기적 슬픔은 우릴 좌절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해요. 그렇기에 우린 이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날도 열심으로 기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책임자 되어주신 선하신 하나님께선 참된 평안과 위로와 은혜로 우릴 끝까지 보살피실 것을 믿어요.

아빠,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의 죽음에 우셨던 사실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아주 잠시의 이별에도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릴 지으신 인격적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몰라 주실 분이 아님을 믿어요.



## 아빠, 너무 오랜만에 불러 봐요

김슬기 믿음상

아빠, 너무 오랜만에 불러 봐요. 시간이 흘러 무더진다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매 순간 보고 싶어요.

아빠가 계시기에 항상 전 당당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실수를 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어도 늘 아빠가 곁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걸 믿었기에 그 어느 누구보다 든든한 나의 나무가 있다는 걸 알기에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아빠가 안 계신 지난 몇 년, 온실 속의 화초였던 우리 세 모녀는 많이 흔들리고 아파하며 늦은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엄마도 동생도 온몸으로 아픔이, 슬픔이 뚫고 나와서 지켜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였다면 미래에 대한 고민도, 지금 각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이 오롯이 스스로 해내야 하는 것들에 우린 각자 지치고 힘들었나 봐요.

그러면서도 평생을 아픈 다리로, 우리를 위해 쉬 없이 달려 오셨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결정과 책임을 아빠 혼자 짴어지셨다는 게 죄송해서 많이 울었어요. 아픈 아빠에게 그렇게 큰 병이 두 번이나 올지 몰랐고 그렇게 빨리 헤어지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이라 빨리 데려가셨다고 위로해주는 말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빠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이 더 필요로 하는데.

아빠 생신 때 잠깐 퇴원하셨는데 미역국 안 끓여드린 거 후회해요. 그 주일에 가족사진 찍을 수 있었는데 신랑 없다고 “다음에” 하고 안 찍은 거 후회해요. 간호실 전화 받은 날, 아빠가 올 필요 없다고 신랑 생일상 챙기라고 하셔서 안 간 거 후회해요. 죄송해요. 아빠가 정말 오래 잘 금방 견디고 나오셔서 다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불효자는 ‘결결결’ 하고 운다더니 정말 제가 그렇게 서럽게 울고 또 울고 그랬나 봐요. 누가 “아빠랑~”이라고 말만 해도 울고 시댁 가서도 아버님만 뵈면 눈물이 났어요. 그냥 일상에서 매 순간 아빠랑 함께 해보고 싶던 것들이 문득문득 떠올라 울컥하네요.

그해 봄, 라디오 사연으로 받은 커피 박물관 티켓, 우리 같이 가기로 аж래됐잖아요? 아프시기 전엔 항상 아빠가 원두 같이 내가 내리고, 원두 담당은 아빠였는데... 초겨울 바람이 매

섭턴 늦은 오후에 엄마랑 다녀왔어요. 원두는 아빠가 좋아하던 예가체프로, 두 분이 하시던 노을 배경의 자유로 드라이브도 하고, 아빠가 계셨으면 좋아하셨을, 우리가 더 행복했었을 경험들이 늘어가고, 몸부림치며 울던 시간들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지나가네요.

엄마는 아빠와의 마지막 대화 속에서 힘을 얻고 하고 싶은 일을 실천하고 계세요. 무언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순간 그곳에서도 곁을 지켜주세요. 저는 아빠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건강하고 예쁜 딸을 낳아 엄마가 되었어요. 매 순간 아빠를 찾아왔으니 배가 불러가는 모습도 아이가 일어서고 걷는 모습도 보셨지요? 축복이도 알아요. 아빠 사진을 보며 ‘하빠’라고 해요. 축복이가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제가 아빠처럼 강하고 단단한 어른이 되어야 우리 딸도 마음껏 웃으며 꿈을 펼칠 수 있을 테니까요.

“... 내게 올 것 없다. 엄마에게 잘해라. 존귀하신 어머니다.”

아빠의 마지막 어버이날 문자, 그 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빠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되뇌며 좀 더 의젓하고 어른스럽게, 아빠의 딸인 것이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아빠, 파주에서 보냅니다. 슬기가



## 영원한 나의 하늘, 파파

국민아 믿음상

파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이 아빠 없이 보내는 아빠의 첫 생일이네요. 해마다 얼굴 보고 함께 축하했던 날을 이제는 아빠 없이 지내려고 하니 슬픔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기뻐했던 날이 이제는 너무도 슬픈 날이 되겠지요.

어때요, 아빠가 계신 곳은? 하늘에 잘 도착했다고 항상 지켜 보고 있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큰딸 꿈에 오신 이후로는 정말로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덜 아파하고 씩씩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쉽지 않네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아빠가 더욱더 그리워요.

응급실에서 통증을 호소하면서 온몸을 뒤틀던 그 모습. 목은 타들어 가는데 물을 마실 수 없어 가제 수건에 물 묻혀 오니 있는 힘을 다해 쪽쪽 빨던 그 모습. 아빠의 그 어떤 말도 듣지 못하고 아빠를 보내야 했던 그 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

르네요. 많이 아팠을 텐데. 이틀이 멀다고 수혈하고, 온몸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들이 너무도 무서웠을 텐데 자식들 걱정할까 봐 “괜찮아”만 하셨던 우리 아빠.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한 게 아니었을 텐데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라 정말로 아빠 말처럼 금방 일어나실 것만 같아서 그래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정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들을 다 되돌리고 싶어요. 우리 아빠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볼 수 있다면. 아빠를 한 번만 안아 볼 수 있다면. 아빠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아빠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데 표현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사랑하는 파파. 이번 생에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네요.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두시고 아프지 않은 곳에서 이제 평안히 쉬어요. 엄마랑 민경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역시 우리 큰딸~!” 할 테니 지켜봐요.

아빠의 엄한 가르침이 싫고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가르침에 감사한 게 너무도 많네요.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아빠의 성품 본받아 베풀며 살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빠를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 잠 시만 안녕.



## 아빠, 사랑해!

 백향은 믿음상

친애하는 명현 씨, 우리 아빠!

안녕 아빠, 나 막내딸 향은이에요.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 다시 아빠한테 편지를 보내는 날이 왔네~ 그동안 잘 지냈는지 늘 마음속으로 아빠를 생각하고 추억하지만, 메모리얼파크에 추모의 글을 올릴 때면 내 마음이 정말 아빠에게 전해질 것만 같아서 기분이 새로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어떻게 편지를 적어 내려갈까 며칠을 고민한 것 같아. 그러다 문득 아빠가 “우리 막내딸이 얼마나 성장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꼬~” 하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해.

19살이던 아빠 딸이 벌써 24살이 되었어! 어른이 된 것 같기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

고 있어요. 그래도 생각 많고 신중한 아빠 성격을 속 빼닮아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 얼른 진로를 정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강했었는데 순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과연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고민인가?’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 미래를 다른 사람들의 속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성급하게 정하지 말자고 다짐했어. 아빠가 내 옆에 있어도 이렇게 조언해주지 않았을까?

아빠, 여전히 앞날은 무섭고 꿈은 모호하지만 나는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다 둘째 치고 적어도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자. 생각하고 있어! 적어도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자. 꽤 괜찮은 생각 같아. 맞지~~?

또 포기를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어.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하고 있는 일이 타인에게든 나 자신에게든 부정당하는 게 싫어 합리화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겁 많고 고집스러운 나에게 이 말이 피난처 같이 느껴졌어. 뭐든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나지만 마음 한편에 “포기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새기고 살면 조금은 덜 무서울 것 같아.

아빠가 아빠이기 위해, 엄마가 엄마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했었을까 생각해. 그 큰 용기 덕분에 지금의 내가, 언니가 있는 거겠지? 받은 사랑만큼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게. 꼭! 아빠가 지어준 이름 따라 향기로운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될게요!

아빠. 인생도 길게 보면,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볼 수 있대. 그러니 끝은 임무 완수라는 거야! 아빠는 아빠로서의 임무를 정말 잘 완수해줬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 혹시라도 하늘에서 우리 가족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면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받으면서 행복하기만 해야 해! 알겠지?

나도 나~중에 내 인생의 프로젝트를 잘 마치고 갈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만나면 난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고, 또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아빠 여전히 너무너무 사랑해! 앞으로도 계속 계속 사랑해! 보고 싶어. 우리 꼭 다시 보자!

막내딸 향은이가



## 여보, 나는 행복합니다

이진예 믿음상

여보, 94년 서울에 가장 무더운 날씨라고 뉴스에 나오던 그 날 나는 식당일을 하는 중이었는데, 딸에게 당신이 길에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정리하고 무슨 정신으로 택시를 잡고 왔는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떨리고 무섭고 머릿속이 백지가 된 것처럼 하얗게 변했던 것 같아요. 아들은 군대에 간 상황이고 학생인 딸은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어금니를 꼭 깨물었던 것 같아요. 의사가 이미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도 불가하고 손을 쓸 수 없다는 얘기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우니 가족들에게 알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하얀 벽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시어머니와 친척들에게 하나하나 다이얼을 돌리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말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떨

리던지요... 그동안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가서  
별 받은 것인가. 건강 음식들을 많이 못 해줘서 그런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이 마냥 다 내 잘못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결국에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지요!

중환자실에 며칠 있는 동안 당신 팔에는 온갖 알지도 못하는  
주삿바늘이 꽂혀있고 장례 준비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과는  
달리 생명을 붙들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하던  
지. “그래, 눈만 뜨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한 달여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당신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짧은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손잡아주던 것밖에  
없었어요. 생전 힘들어도 안 나던 코피까지 자주 나고 그래도  
당신이 꼭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꺾꺾 참으며 지냈  
답니다. 기적처럼 눈을 떴지만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  
린아이와 같은 지능에 많은 기억을 잊어버린 모습 또한 당신이  
너무 낮설고 그 총명하던 사람이 이렇게 되다니 참으로 더 막  
막한 마음이 들어 기도했어요. 하지만 살아줘서 고맙다는 생각  
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 후 당신도 자신의 변한 모습을 알게 되고 얼마나 괴로워

하던지 가족들에게 투정과 화를 내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다며 퇴원하라는데 이 병원 저 병원을 돌며 한참 동  
안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요. 우리 가족은 달라진 환경과  
남편과 아빠의 모습에 적응을 해야 했고 인정해야 했어요. 여  
보, 그래도 그날 갑작스럽게 나를 떠나지 않아서 고마워요. 아  
직 하고픈 말도, 하고 싶은 일도, 우리 애들도 어린데 끝까지  
생명 놓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당신과 40여 년을 살면서 16년 동안은 어린아이 같은 당신  
을 병수발하는 시간으로 보냈지만 그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  
함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  
워요. 오랜 병마와 병간호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지요. 순간  
순간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로 가야 하는 일도 많아지고 합병증  
으로 수술도 받아야 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하지만 그 16년 동안 어린 딸이 옆에서 아빠의 손발톱을 깎아  
주고 귀도 파주고 세수와 머리도 감겨주는 모습이 어찌나 잘하  
던지 정말 고맙기만 했어요. 커서는 아빠 더 잘 보살펴 드리고  
싶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데 어찌나 자랑스럽던지요.

지금은 당신 손을 다시 꼭 잡아줄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평안히 잘 있는지 우리 가족을 잘 지켜봐 주고 있는지 당신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당신 곁으로 가도 이상할 나이가 아닌데도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 더 건강하게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여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늘 옆에 가까이 있다고들 하던데 그 힘들었던 시간에도 행복했었고, 당신이 하늘나라 가기 2년 전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감사했어요.

봄이 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는 걸 보니 시골집에서 젊었을 때 유채꽃밭에서 깔깔깔 웃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이 없고 맑은 하늘을 볼 때마다 계곡으로 치킨 한 마리 튀겨서 즉흥적으로 가족여행 떠났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고마워요. 나에게 많은 추억을 주고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주어서……. 나도 건강하게 잘 살다가 당신 곁에 가게 되면 많은 추억거리를 들고 갈 테니 그때 가서 많이 담소 나누기로 해요~! 여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오늘 하루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 아버님 전상서

표윤상 믿음상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도 15년이 되었네요. 2005년 5월 1일이니 정확히 15년이 됩니다.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나 뒤돌아봅니다. 우선 아버지를 모신 곳에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가난한 사람들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던 외부 봉안당에 모시며 어차피 안이 보이지 않으니 제일 높은 단이 나올 것 같다고 결정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이곳도 문을 연 지 얼마 안 되어 빈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모신 한 면이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젠 이 옷들이 생겨 외롭지 않으시지요?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가 떠나신 후 인고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형과 어머니는 각각 신장이식과 심장 수술 등 큰 수술들을 하고 평생의 장애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각자 대학 졸업장을 얻었습니다. 비록

더디지만 진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장기 투병 생활로 접었던 신학 공부를 끝냈고 목사 안수를 눈에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부를 아주 귀여운 딸을 반년 전 얻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아버지를 모신 이곳에 올적할 때, 불현듯 그리울 때,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가 정말 어렸던 저를 데리고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을 때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지금 그 할아버지의 묘소는 이장하고 없지만, 제 기억에 아버지는 차로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아버지의 고향 선산을 갔었지요. 그리고 할아버지 묘소와 어르신들의 묘소들을 한 바퀴 둘러보곤 할아버지 묘소 앞에 드러누워 아무 말 없이 촉촉한 눈으로 한참을 계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시간이 쓰아놓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때의 어린 아들이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주는 무게와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를 때, 서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아

버지의 육신의 흔적 밖에는 이곳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잡한 일상을 훌훌 떠나 찾아올 곳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으나 실상 저의 기억 속에서 제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으로 15년 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오게 될까요? 15년 후면 제 나이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나이와 꼭 같아집니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과 회한, 가시는 날까지 품었던 비전이 저의 삶을 통해 어느 정도 실현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리라 믿습니다. 주 앞에서 다시 만나 뵈날을 고대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 좋은 사람이 될게요

장다은 **화평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지금은 편안하신지요.

제 인생에 있어 당신과 함께 한 모든 시간들 속에 당신께 너무나도 받은 게 많아 아직도 당신이 그립고 그립고 그립습니다. 당신을 보내고 첫 번째 봄이 왔습니다. 언젠가는 당신과 이별하는 순간을 준비 못 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내 옆에 당신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나의 시간은 당신이 가기 전과 후로 하루에도 수천 번 나누어집니다.

할머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지금부터는 살아생전 할머니께 하지 못한 말들을 지금 이렇게라도 적어 보려 합니다. 28살 손녀딸의 인생에 절반 이상을 함께 해주시고 항상 저의 편이 되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옆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할머니께 받은 사랑만큼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 아플 때

제가 그 사랑을 나누어 드리고 끝까지 지켜드려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해요.

근데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가 미워서 그곳에 보낸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아기가 되어가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생활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할머니를 그렇다고 어디로 보낸다는 게 더 힘들어 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몸이 아파 이른 오후에 퇴근을 해 집에 들어오는 길, 어딘가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에 그곳을 가보니 동네 분들과 다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저의 가슴은 어느 한쪽이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미어지듯 아프고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봐도 편찮은 할머니에게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다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식구들이 없는 낮의 할머니의 일상이 어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할머니와 끝까지 옆에 있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3년간 시간을 되돌아보니 그렇게 우리 옆에 두는 것이 더 위험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지켜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할머니를 시설로 보냈던 거였어요. 전 단 한 번도 할머니가 싫고 미웠던 적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헤드릴 수 없어 늘 죄송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날이었던 할머니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 그렇게 알고 가셨을까 봐 겁이 나서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그랬죠? 우리 다은이는 마음이 선하고 착해서 좋은 사람들만 올 거라고.... 최도목 권사님! 나의 하나뿐인 할머니! 저 좋은 사람이 될게요. 할머니께 받은 사랑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감사할 줄 알며 그렇게 살게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허락된 시간 속에서 제가 교사인 동안 아이들의 마음에 부족한 사랑이 있다면 가득 채워주어 그 아이들이 보다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아이들도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게 해볼게요. 약속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아주 많아요.

- 하나뿐인 손녀딸 올림



## 보고 싶은 그리운 엄마께

강정옥 화평상

엄마! 지난 겨울 유난히 춥게만 느껴지던 계절은 어느덧 봄이 와서 사방에 눈부시게 벚꽃이 한창 피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을수록 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봄이에요. 엄마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벚꽃은 야속하게 아랑곳 안 하고 피었네요.

천국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그 어떤 좋은 곳을 가도 오직 집밖에 모르시던 엄마인데,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나서 장기간 부재중이시라니.... 아직도 집에 가면 엄마가 방에서 나오실 것 같아요.

저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엄마, 뭐가 그리 급했는지 작년 9월에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셨고, 발인하는 날 내리는 비가 마치 엄마의 눈물과도 같게 느껴졌어

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봉안당에 안치를 마치고 나서 밖을 나오는 하늘에는 눈부신 햇살과 푸른 하늘이 마치 엄마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셨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른인데도 아직 엄마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기 싫고,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이 못난 딸은 생전에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 쓰지 못한 후회와 자책으로 하루하루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로부터 “부모님 계실 때 잘해 드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이 멀게만 생각했는데 바보같이 이제야 깨닫네요.

엄마 왜 그렇게 미련하게 당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끼셨는지... 답답하고 미련하게만 느껴졌어요.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난한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고생만 하시다 가신 우리 엄마.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 엄마가 그리워서 때로는 하늘을 보고 외칠 때도 많았는데 들으셨어요? “엄마! 많이많이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요!

잘 보살펴드리다가 엄마랑 작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엄마를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메모리얼파크에 있는 꽃을 들고 있는 엄마의 사진을 보면 엄마가 왜 여기 계시는지 아직

도 실감이 안 나요.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신 프리지어 꽃말이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라는 거 아셨어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못 이룬 꿈과 하고 싶은 모든 일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즐기기엔 이 땅이 너무 좁았는데 하늘에서 새로운 출발을 항상 가슴속으로 응원할게요. 엄마!

이 땅에서 고생만 하셨는데 천국에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세요. 김 권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4남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 하나밖에 없는 못난 딸 올림



## 보고 싶은 엄마에게

최은정 화평상

엄마, 보고 있지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발에 이렇게 풀이 났네요. 엄마가 살아계시면 오늘 같은 날 굵은 등에 햇살 받으며 발을 매고 계실 텐데 말이에요.

생각나요. 엄마가 사랑하는 막내딸네 발 매주시려고 삶은 계란 싸서 새벽부터 차가운 버스 정거장에 앉아 한 시간이나 버스를 기다리셨던 거. 어떤 때는 느긋하게 나오시지 왜 꼭 새벽에 나오시냐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었지요.

미안해요. 엄마. 엄마 마음 알면서도 새벽공기에 차가운 의자에 앉아 계실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엄마, 오늘이 엄마가신 지 꼭 일 년이네요. 엄마가 아흔여덟 되시도록 건강하셔서 감사하다 했는데 엄마의 교통사고 소식에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달려간 응급실 한편에서 계셨던 엄마는 골반이 내

려앉고 팔, 다리가 만신창이신데도 정신이 또렷하셨지요. 엄마는 그런 분이셨어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병상에서 보내는 6개월 동안에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우리를 안심시키셨어요. 착하고 착한 우리 엄마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많은 생각을 했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마음 아시고 그리운 딸들 실컷 보라고 병원에 모셔다 놓으셨을까요?

엄마가 병원 생활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덕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어요. 엄마, 엄마가 평소에 기도하신 대로 주무시다 편히 하나님한테 안기신 걸 축하해요. 근데 엄마, 화장해서 흔적 없이 뿌려달란 부탁은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딸들, 손주들 힘들지 않게 하시려는 엄마 마음은 알지만 언니들과 상의해서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에 모셨어요. 좋은 데 모시게 되어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엄마도 좋지요?

이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세요. 엄마, 그리운 엄마. 평생을 딸들 걱정으로 보내시고, 뒤에서 말없이 기도해 주시던 우리 엄마. 엄마 떠나고 지난 일 년 동안 참 많이도 울었어요. 청소하다가, 음식을 하다가 불현듯 엄마 생각에 눈물범벅이 되었지요. 생전에 못 해 드린 거, 불효한 것

만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숲에서 산이 안 보이고 물속에서 물을 모른다더니 엄마가 떠나신 뒤에야 엄마가 보이네요. 큰 산 같은 엄마.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채우시느라 얼마나 힘들셨을까. 엄마는 참 너그러운 분이셨어요. 우리들이 잘못해도 꾸짖기보다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한 음식을 해 주셨지요.

엄마 보내드리고 일 년 사이에 저도 이제 엄마가 된 기분이예요. 엄마가 그리워 국에다 엄마가 쓰시던 다시다도 넣어보고, 이제는 애들한테 잔소리도 덜하게 돼요. 애들이 내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든든하고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해요. 엄마, 나이 먹으면 부모 닮아간다는 게 이런 걸까요? 어찌면 그리워서 닮아 가는지도 모르지요.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좋았고, 유순이 엄마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를 온몸으로 사랑해 주신 엄마한테도 감사해요. 저도 엄마처럼 항상 기도하는 엄마, 좋은 엄마로 살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의 사랑하는 막내딸 은정 올림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엄마

조혜경 화평상

며칠 전 또 한 번의 식목일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식목일이면 5남매가 집집이 음식을 장만해서 청양의 선산으로 모였었지요. 성묘를 하고 할아버지 산소 밑으로 마련해놓은 두 분의 가묘 옆에 매화, 함박꽃 국화를 심으시며 “다음에 너희들이 와서 이쁘게 보거라~” 하시던 엄마의 음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그저 들어 넘기며 먼일만 같았던 엄마, 아버지의 투병과 죽음. 돌아보니 또 가슴 한쪽이 아려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 할아버지 같은 멋진 분은 못 봤다고 이야기해요. 또 한 서방은 ‘나도 장인어른 같은 장인이 되어야지’라고 다짐을 했대요. 제가 생각해도 아버지 참 멋진 분이셨어요. 런던포그 바바리에 머물러 두르신 모습도 멋지셨지만 여든이 넘으셨어도 노트북을 펼쳐 놓으시고 번역

도 하시고, 손녀들이 무엇이든 여쭙보면 검색을 해서 밤늦게라도 알려 주시던 열정과 3년여 엄마의 투병 일지를 꼼꼼히 적어 놓으신 자상함을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복막투석을 하셨어요. 마지막 입원하시는 날까지 혼자 투석을 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께 모든 인공적인 생명 연장 치료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해 놓으셔서 인간의 존엄한 모습 그대로 가신 아버지.

꽃무늬 원피스가 잘 어울리시던 우리 엄마.

엄마가 만들어 주시던 샌드위치며 도넛도 맛있었지만 지금도 흉내 낼 수 없는 엄마의 시원하고 쫀! 한 김치 맛. 50대 중반에 뇌출혈로 좌측 마비가 되신 후에도 주저앉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분보다 열심히 사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다니시며 자녀들은 물론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시던 기도의 권사님.

그때의 엄마가 그렇게 사셔도 회한이 없으신 줄, 아니 그 생각조차도 못 하고 철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50대 중반은 여전히 하고 싶은 것, 가꾸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데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포기해도 되는 엄만 줄 알았습니다. 60을 넘어서야 그때의 엄마는 얼마나 많은 눈

물을 흘리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만 했을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아픈 마음을 읽지 못한 무심한 딸은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신들의 모습들은 자식들 뒤로 감추신 채 자식들 힘들세라 멀리 성묘 다니지 말라고 평소 엄마가 기도하러 다니시던 오산리로 가지겠다던 말씀에 따라 두 분을 차례로 모시곤 이제는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나면 언제든지 훌쩍 다녀옵니다.

벚꽃 피는 계절엔 날리는 벚꽃 속에 두 분 모습이 떠올라 서럽고, 국화꽃 피는 계절엔 국화 향 속에 두 분의 향을 느낍니다. 하얀 눈발 날리는 날에 분수대 옆 크리스마스트리를 보면 돌아가실 무렵 아기처럼 친진하게 변하셨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작은 인형들을 손에 쥐어 드리면 꼬옥 쥐고 놓지 않으셨던….

엄마 돌아가시고 명절에 아버지 모시고 왔을 때는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아 산 쪽에 돛자리를 펴고 간식거리를 드리곤 했는데 지금은 사방에 파라솔도 예쁘게 마련되어 있어 청양 선산에 심으셨던 꽃 대신 메모리얼파크 곳곳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며 엄마, 아버지의 기억들을 나누곤 합니다.

이다음 우리가 엄마, 아버지 곁으로 갔을 때 우리의 아이들도 이런 마음일까요? 이렇게 애뜻하겠지요? 그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지금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제도 필요 없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주 안에서 평안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봄날.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유난히 그리운 날, 이제는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 하빈이 헬미가 된 큰딸이 적었습니다.

2020년 4월 벚꽃 날리는 날에...



## 하늘나라로 보내는 편지

이순자 화평상

지금은 2020년 4월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다 가고 벚꽃이 만개했네요. 그러나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국민이 움츠려 들어 있어요. 당신은 맑고 깨끗한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계신 거죠?

77년 12월 4일, 겨울이었지만 너무나 따뜻한 하루였지요.

그날 결혼식을 마치고 여행 다녀와 2주일 만에 서울에 신혼살림을 차리며 외삼촌이 잡아 놓으신 가게로 이사 와 장사를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 결혼까지 6개월을 비워 두었더니 단골손님들은 다 떠나버린 후였지요. 정말로 1년여를 단골이 확보되기까지 너무 힘들게 보냈죠. 당신은 시장에 갈 때는 돈 조금만 가져가라면서 절약을 강조했죠. 콩나물 50원어치, 동태 1마리 150원. 한 달에 두어 번 찌개를 끓이는 날은 최고의 만찬이었죠. 둘이서 김장김치 30포기로 겨울을 나며 우린 여기서 다시 귀향할 수 없으니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자 했죠. 그러다 12월

31일 연말이면 가게 문을 닫고 석유봉로를 켜놓고 마주 앉아 돼지고기 1근을 사다 구워 먹을 때 너무나 꿀맛이었죠. 그러다가 모자라서 1근을 더 사다 배를 채우며 흐뭇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우연히 기회가 되어 1년 반 만에 빚을 얻어 집을 사게 되었죠. 그때부터 장사도 잘되었고 1년 후 또 집을 새로 짓게 되었으나 인간들의 시샘이 우리의 집 짓는 모습을 가만들 리 없었죠. 그렇게 이웃 간에 부침개 하나도 나누어 먹으며 사이 좋게 지냈건만, 집짓기 시작하자 일조권 침해라면서 진정을 넣어 집을 짓다 중단을 해가며 힘들게 완성되어 풍성한 가을 10월에 이층집을 완성하였어요. 그때는 즐거움의 나날이었죠.

그러나 새집에 들어가 몇 개월 후, 집 지으며 받았던 스트레스로 당신은 병원 문을 들락거리기 시작하여 1년에 한두 번씩 입 퇴원을 반복하며 지내다, 급기야 2004년 8월 이식수술까지 잘 마치고 적응을 잘해가던 6개월 후 또 담도 시술에 들어가서 불의의 의료사고로 그렇게 힘들었던 21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마감하고 2005년 2월 20일 당신은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 버린 거죠.

마지막 수술하러 가던 날 아파트 복도 귀퉁이를 지날 때까지

아들과 함께 손을 흔들며 뒤도 못 돌아보고 병원으로 떠나던 뒷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그 뒷모습이 아련히 잊히지 않고 머릿속에 맴돈답니다. 그렇게 떠나간 후 1년간 너무 마음잡을 길 없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아들을 의지하며 살다가 결혼시킨 후에도 7년을 함께 살면서 마음을 다스려 왔어요. 지금은 살던 집으로 돌아와 혼자 지내고 있어요. 우리 가게가 재개발되어 21년 1월이면 입주가 되는데 함께 할 수 없음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그때 2004년 수술 경과 너무 좋아서 회복이 빨라서 우리 올해부터는 가게 문 닫고 여행 다니며 살자 했었죠. 그동안 한 달에 한번은 가게 문 닫는 날이면 필름 한 통 사서 나가 찍고 오긴 했었죠. 그나마 조금만 추억들은 만들었으나 당신과 해외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서 너무 아쉽고 죄스럽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친구 모임에서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 너무 눈물이 앞을 가려 많이도 울었답니다. 정말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렇게 지내다 가게가 헐리며 아이들이 엄마 공부나 하라고 해서 고등학교 다녀서 졸업하고 2019년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지난날의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내년이면 사회복지사가 된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지금은 만학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지낸답니다. 앞으로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갈 테니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주시고 축복해줘요. 딸도 사 남매를 두었고 직장 다니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항상 열심히었던 딸 내년이면 박사학위를 받는대요. 아들도 손주 하나 두었고 방송국 차장이 되었답니다. 자녀들과 나 모두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늘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줘요. 그리고 아들 손주 올해 여덟 살인데 며느리와 1월 25일 날 뉴질랜드로 유학 갔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늘 걱정됩니다.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지금도 기도원 정문에 다가가면 늘 눈물이 흘러내린답니다.

암튼 당신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갈게요. 지켜봐 줘요. 생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 처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챙겨주셨던 외삼촌 3월 25일 하늘나라 가셨어요. 내가 다녀왔어요. 하늘나라에서 만나 봐어요.



## 너무 사랑해서 늘 보고 싶은 우리 아빤

 이진희 화평상

아빠, 안녕^^ 천국으로 이사 가서 잘 지내고 있어? 우리가 잠시 이별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나가고 있네...

오늘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아? 4월 26일 아빠 딸 36번째 생일이었지. 알고 있었지? 내가 아까 아빠한테 가서 아빠랑 셀카도 찍고 왔잖아. ㅎㅎ

아빠, 엄마랑 나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지만, 우리 너무나도 대견하게 둘 다 잘 버텨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가끔은 아빠가 너무 미치게 보고 싶어서 터져버린 울음이 멈춰지지 않지만 그렇게 시원하게 한번 울고 난 후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 음... 처음 아빠가 천국 갔을 땐 하나님 정말 살아있긴 하는 건지 왜 그래야 했던 건지 너무 원망이 컸지만 분명 계획하심이 있으리라 믿으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지.


아빠, 우리는 금방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더 이상은 너무 슬퍼하며 속상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게. 엄마도 내가 잘 챙겨주면서 아빠한테 할 효도까지 두 배로 해주면서 살 거야. 아빠도 천국에서 우리 지켜봐 주면서 응원도 해주고, 가끔은 엄마 꿈에 나타나서 엄마 마음도 달래주고 해줘.

아빠가 나에게 부여준 사랑만큼 내가 아빠에게 다 돌려주기엔 35년이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별을 할 줄 몰랐기에 더 그랬겠지만 나 아빠를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우주만큼 아니 그보다 더 엄청나게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나, 이현우의 딸 이진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선하게 살아갈 거야! 지켜봐 줘! 보고 있었어도 보고 싶었을 우리 아빠. 너무나도 사랑하고 올바르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빵은 우리 아빵 카~b ㅋㅋㅋㅋㅋ 사랑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_)



## 갈수록 더 그리운 어머니에게 - 어머니의 흔적 -

 박춘희 사랑상

어머니, 심성이 고와서인가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시던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어버이날이 있는 달이어서 누구라도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이라도-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 시절,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라는 노래를 부를 때면 노래를 부르기도는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우리 어머니를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어언 6년이나 흘렀고, 아들인 제 나이도 고희(古稀)를 넘겼는데도 아직도 때때로 눈물짓고 있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였는데, 어머니는 제 가슴에 어머니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육체에도,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 생활에서도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그 흔적을 되뇌곤 합니다. 어머니 기일 때에는 아들딸 손자들에게

그 흔적을 추모사처럼 들려주기도 합니다.

먼저 어머니의 육체에 남기신 흔적입니다. 어머니는 곱디고운, 술이 많은 머리카락을 언제나 조선 시대 여인처럼 쪽지고 비녀를 꽂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짐을 이고 다니셔서 언젠가부터 머리 한가운데는 살갓이 드러났지요. 물론 살기 위해 그리하셨지만, 두 아들, 저와 제 아우가 일 년 차를 두고 이어서 군에 갔을 때, 그 3년 기간에 어머니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수십 리 길을 이것저것을 이고 다니셨다 하셨습니다. 아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다니신 짐은 하나는 삶의 무게요, 또 하나는 외로움의 무게였습니다.

또 하나, 어머니의 뺨은 늘 사과처럼 빨갱게 달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사하시던 시장은 지붕만 있고 벽이 없었지요. 노점상이나 다름없어서 비와 눈은 피할 수 있었으나 바람과 추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불어와도 얼굴을 가려줄 만한 수건도 변변히 없었고, 수건을 쓴다 한들 한기를 막아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종일 그렇게 계시다가 그나마 온기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시면 얼굴이 화끈거리며 빨갱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자 계절과 상관없이 늘 어머니 뺨은 불그스레한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참 고우신 미인이셨는데, 사과 뺨까지 가지시게 되셨지요.

그리고 세 번째 흔적은 발바닥입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소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두껍고, 꺼칠꺼칠하였습니다. 동상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그러한 발을 볼 때면,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얼어있는 무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추운 겨울날 집에 돌아오시면, 발을 따뜻한 물에 넣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얼음물에 집어넣곤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발을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한데도 어머니는 자신의 고생에 대해서는 별로 내색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남의 걱정을 하셨지요. 어머니 입에 늘 붙어 있는 말씀은 아무개가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춥겠나? 얼마나 배고프겠나? 얼마나 고생하겠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남의 일로 눈물지으셨어요. 돌아가시기까지 그러하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신앙 흔적도 남겨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생 새벽기도를 하셨습니다. 어김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고향교회가 창립 67주년 감사예배에 참석하였을 때, 창립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표창도 받으셨지요. 그 예배에서 옛적 담임목사님이셨던 한 분이 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몹시 춥고 눈이 많이 온 겨울날, 새벽기도회에 교인이 딱 두 명만 나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어머니셨다는 것입니

다. 그러한 어머니는 백 세가 넘으셨어도 몸이 허락할 때까지 4층 교회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새벽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모태에서부터 언제나 모든 집회에 두 아들을 꼭 교회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 마루, 어머니 곁에서 잠들었다 오곤 하였습니다. 아직 어릴 때인데도, 한 이 삼십 리를 걸어서 부흥회에 데리고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어쩌다 그 길을 차로 지나다 보면, 어떻게 어린 것이 양말도 없이 고무신만 신고, 자갈길을 걸어서 그 멀리 다녀왔을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기야 어머니는 백 리 길 넘는 곳을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셨으니, 몇십 리 저를 데리고 가는 거야 별거 아니었겠지요.

일생 믿음으로 사신 어머니, 어머니는 집에 계실 때에는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는 것이 일과이셨습니다. 좋아하시던 찬송가가 제 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식사기도 때에는 식사 전뿐 아니라 식후에도 기도하셨지요. 한번 성경을 펼치시면 몇 시간이라도 읽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거실 소파는 어머니의 성소(聖所)이었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흔적은 이제 나에게 그리움과 눈물로 남습니다. 그림고 그리운 어머니, 훗날 그 천국에서 해후(邂逅)하겠지요. 그때까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평안히 계시요.



## 서울덕, 울 엄마

임혜선 **소망상**

엄마,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기에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벌써 이 계절이 돌아왔어요. 이 노래를 나에게 가르쳐준 엄마. 지금 하늘나라에서 환한 웃음으로 날마다 찬양을 드리고 계실 나의 엄마. 엄마는 누구보다 노래를 좋아하셨지요. 엄마, 또 봄이네요. 오늘도 저 산 너머엔 누가 사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오랜 시간 품고 살아 온 엄마 딸은 아예 산기슭으로 이사를 왔어요.

엄마, 이곳은 부암동 산기슭, 건너편엔 인왕산 기차바위가 정면으로 보이는 북악산 능선 해발 150미터 위여요. 이곳은 사철 구분이 뚜렷하여 특히나 긴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는 지금은 모든 것이 날마다 환하게 밝아오고 딴 세상 같은 기분이 들 만큼 아름다운 동네여요. 엄마가 살아계셔서 이곳에 오셨다면 무슨 애길 하셨을까요? “이곳은 내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계동과 종로통이 가까우니 고향에 온 것 같구나!” 하셨을까요?

아님 “혜선아, 다 좋은데 너무 가파른 언덕이어서 너도 조심해야겠구나.” 하실까요?

엄마, 아직 글도 채 깨치지 못한 제게 라디오에서 나오던 겨울나무란 아름다운 동요를 알려 주셨고 그래서 나는 엄마와 떨어져 아버지와 할머니 함께 시골의 학교 관사에서 살며 전주에 계신 엄마를 그리워하며 그 겨울나무를 불렀었지요. 그리고선 전주로 와서는 언제부터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엄마도 즐겨 부르시던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기에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를 부르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보면 엄마는 트로트 체질은 아니셨나 봐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합창부에 들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해방 전 지금도 남아 있는 덕수궁 앞 시의회 건물인 당시의 부민관이란 곳에서 노래를 하셨다는 얘기도 하셨었죠. 그 엄마의 DNA가 제게 남아 합창부도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는 성가대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엄마,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고 또 곱고 예리던 서울댁 올 엄마는 심진강변 너무도 아름답지만 심심산골인 아버지의 고향에 따라 내려오셨네요. 그것도 1950년, 6·25가 터지고 나서 7월 말 이문동인지 흑석동인지에서 큰 언니를 출산하여 피난도 내려오지 못한 채 버티다 9·28 수복이 되어서야 어찌어찌하여 남행 열차를 타고 전주까지 아버지와 함께 세 식구가 내려와

거기서도 몇십 킬로를 더 가야 하는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에 들어가신 것이지요. 엄마는 종로 계동 33번지 그곳에서 이미 어린 시절부터 전기가 들어오는 문화생활을 누리셨던 분인데 어찌하여 그 시골 출신의 아버지와 만나게 되시어 그 긴 인생 여정 동안 서울을 떠나 전기는커녕 차편도 없었던 입석리의 아낙이 되셨던 것인지요?

엄마, 엄마는 평생 ‘서울댁’(전북 사투리론 ‘서울떡’으로 들렸지요. 내 귀엔)이란 호칭으로 친척과 지인들에게 불렸지만, ‘서울떡’이란 호칭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고생을 오래 하셔야만 했지요. 태생과 성장은 고결하였으나 시집온 환경이 그렇게 엄마의 성품이나 특성을 맞춰줄 수 없었고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엄마가 우리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엄마의 가슴엔 얼마나 크고 깊은 구멍이 뚫리고 얼마나 짙은 우울과 슬픔이 스뻐던 것일까요?

엄마, 그래도 엄마는 둘째 언니 고등학교 때 자랑스러운 어머니상도 받으셨고 생각해보니 저의 국민학교 시절 4학년인가 그때도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흐른 터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기는 해요. 엄마는 그렇게 딸 넷을 키우며 온몸과 마음이 부서질 듯 살아내셨죠. 엄마, 기형도라는 시인 아세요? 어찌면

모르시겠지만 그 시인은 엄마보다도 훨씬 전에 20대 후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시인인데요, 시 중에 어린 날 엄마가 열무 몇 단을 팔러 시장에 가시면 학교에 다녀와 해 질 무렵 엄마가 골목길을 걸어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려 차가운 방바닥에 얼굴을 대고 마냥 기다리는 한 소년의 모습이 나와요. 엄마, 내게도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열두 살 차이가 나는 큰 언니나 둘째 언니, 셋째 언니가 모르는 아픔을 저는 또 다르게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제가 대학 2학년 때였던가요? 그때 덕진동 어느 골목길을 걷다가 엄마가 이런 얘길 했던 생각이 나요. 아니 어쩌면 제가 더 어린 시절일지도 몰라요. “혜선이 네가 대학 2학년이면 엄마가 좋겠다.” 이 말이 왜 지금까지 생각이 날까요? 정황상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직 제가 대학 2학년 이기엔 한참 멀었을 시점이겠는데… 왜 저는 오늘 문득 그 말이 생각났을까요? 그만큼 엄마가 걸어온 삶이 팍팍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엄마는 아직 어린 저를 보면서 네가 대학생이면 좋겠구나. 그럼 이 고생도 멀지 않았겠거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엄마, 결국 1950년 가을 떠났던 서울에 엄마는 막내딸의 직장과 형편 따라 1999년 5월, 여의도 땅으로 돌아오셨네요. 49년

만의 귀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 홍해를 건너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맨 후 가나안에 입성한 것 같이, 일제가 36년간 우리 땅과 민족을 짓밟은 것보다 더 긴 세월이 흐른 후 엄마는 다시 고향 땅 서울에 돌아온 것이지요. 그 사이 엄마는 늙어 갔고 딸 넷이 결혼을 하여 자손은 늘었지만 엄마의 젊음은 찾을 길이 없어졌고 노년의 병마와 연약함이 엄마에게 훈장처럼 남게 되었지요. 그렇게 올 엄마 고향 서울에 왔건만 오래잖아 첫 번째 뇌졸중이 찾아와 맥없이 무너지고 조금씩 회복하셨으나 끝내 힘을 잡지 못하시고 겨우 겨우 버텨내다 2009년 10월 15일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셨지요. 아, 엄마랑 2006년 청계천이 막 복원된 현장을 모시고 갔던 기억이 나요. 엄마의 어린 시절 기억이 그곳에 잠시나마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날 연분홍 모시 적삼의 엄마 모습이 결국 엄마의 영정 사진이 되었지요. 엄마는 전주에서 권사님이 되셨고 서울에 오셔서도 여의도의 작은 교회를 섬기며 짧았지만 교회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사랑하시며 엄마만의 부드러움과 여유와 아름다움을 얼마나 주위에 나누어 주셨던지요.

엄마, 오늘 편지를 쓴다고 아침부터 시작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지난 일기장을 들춰보다 몇 번 울음을 터뜨렸어요. 2008년 엄마가 두 번째 쓰러지고 나서 내 마음에 밀어닥친 쓰나미 같

있던 그 시절의 아픔과 절망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요. 엄마, 그 래도 이제 나는 다시 일어설 줄 알지요. 그간 자랑스러운 막내 딸로 평생 살아 온 것에 익숙한 내가 엄마와 아버지 모두 다 안 계신 지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지 켈 잘 알고 계신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저를 일으켜 세우시죠.

엄마, 오늘은 아버지 애긴 하나도 안 썼어요. 아버지가 서운 해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이해하시겠죠? 두 분 은 이 땅에서 마지막 안식처로 지금 파주 크리스천메모리얼파크 사랑관에 나란히 계시고 그사이엔 심심치 않으시게 작은 양 두 마리가 귀염둥이처럼 놓여있죠. 이해심 많은 아버지께 다음 에 편지 보내드릴게요.

엄마, 어느덧 부암동 언덕에 어둠이 깊어진 시간이에요. 천 국에도 낮과 밤이 있나요? 예술 감성도 뛰어난 우리 엄마 아름 다운 그곳 천국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또 찬양하며 아버지와의 잘 지내세요. 아직 지상에서 과제와 사명이 남은 막내딸은 그 기한이 다할 때까지 충성하며 살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주님 을 뵈오러 가겠어요.

이제는 서울택에서 천국택이 되신 엄마에게, 막내딸 혜선 올림



## 벚꽃 앞은 꽃비가 되어 내리고...

조혜경 **소망상**

우리 엄마 이용순 님을 추억하며...

2006년 10월

병실로 들어서니 오늘따라 엄마가 더 반가워하신다. 요 며칠 내 몸도 아팠지만, 행여 엄마에게 감기를 옮길까 봐 못 왔더니 무척 기다리셨나 보다. 하긴 물리치료 하시는 시간 빼고는 천 장만 바라보고 계시려니 오죽 답답하고 무료하실까... 물끄러 미 엄마를 쳐다본다. 엄마는 나를 보신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엄마! 무슨 생각 해?”

“고마워...”

“뭐가?”

“네가 와서...”

“.....”

“뭘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 먹으면 살만 찌고 그러면 사람들 힘들어...”

“그래도 드실 건 드셔야지. 뭐 해 다 드릴까?”

“난 절편이 좋아.”

“근데 엄마 딱 드리면 나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그래도 다음에 가지고 와서 작게 잘라 드릴게.”

“조금만, 어여 가서 저녁 해...”

“엄마, 또 올게! 편히 계세요.”

손을 한번 잡아보고 돌아 나오니 엄마는 긴 이별을 하는 사람마냥 손을 흔들고 또 흔들다. 엄마는 손을 흔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나 어렸을 적 장에 갈 때 손 흔들며 가시던 그때를, 혹은 수학여행 보내며 손 흔드시던 그때를, 아님 신혼여행 보내며 남몰래 눈물 흘리셨다는 그때를, 첫 아이 기저귀 보파리 들려 보냈던 그때를 생각하시는 걸까? 난 얼마나 더 엄마의 빠이빠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2008년 5월

어릴 적 어버이날엔 엄마한테 꽃을 드렸지.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에서 꽃바구니까지. 어느 해엔가는 분홍빛 휴지로 꽃을 만들고, 예쁜 편지지에 편지를 써서 엄마에게 읽어 드리다가

괜히 설움이 복받쳐서 울고 말았어. 엄마는 어깨를 들쩍이며 우는 나를 꼬~옥 안아 주시곤 등을 다독여 주셨는데 어린 마음에도 엄마의 고달픈 삶은 느껴졌던 게야.

오늘은 빨간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사서 엄마한테 갔었어. 피부는 허영계 다 들고 일어나고, 여기저기 주사 자국으로 멍투성이인 엄마의 팔을 차마 볼 수가 없었어.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뿌연 안개 속에서 헤매시는 건 아닐까.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는 딸은 그저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을 쥐었다, 놓았다, 문질렀다.

속절없는 짓만 하고 있었지. 오늘은 날 알아보실까? 딸은 하실까? 엄마의 눈이 크게 떠진다.

“엄마! 나야~”

힘겹게 나오는 한 마디.

“딸...”

응! 엄마 딸이야.

2008년 6월

엄마가 가신 지도 벌써 2주째가 됩니다. 오늘 새벽 정발산을 오르며 처음 엄마를 병원에 모시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새벽이면 엄마를 보고 출근하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호수공원에 모

시고 나가던 그때 엄마랑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과자랑 오징어포랑 사 들고 가 침대 밑에 걸어드리면 참 좋아하셨었는데... 지금도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엄마가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은 슬픈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엄마의 빈자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계실 것 같고요. 맥없이 바라보시던 엄마의 눈빛이 아직은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병원에서 챙겨 온 엄마의 스웨터를 빨려고 내놓았습니다. 베이지색 스웨터 두 벌. 엄마의 흔적은 그것뿐입니다. 새로 사다 드리곤 그걸 입으실 새도 없이 중환자실로 가신 바람에 상표가 달려있는 내복은 옆의 할머니 드리라고 주고 왔고...

그러고 보니 엄마는 참 가진 게 없었네요. 삼 년 전에 훌훌 다 털고 병원으로 들어가시곤 그냥 환자복 하나에 곰 인형 하나. 엄마의 굳어가는 손에 끼워드렸던 작은 곰 인형. 못된 딸은 오늘 아침 그 인형을 하얀 종이에 싸서 버렸습니다. 그 인형은 엄마의 아픔입니다. 이제 다 잊고 편안히 쉬실 엄마는 엄마의 굳은 팔에 끼워져 있던 그 작은 인형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인형을 버리며, 엄마의 아픔도 버렸습니다. 엄마의 슬픔도 버렸습니다. 이제 엄마의 고왔던 모습만 새기렵니다. 미소만 가지렵니다.

2008년 7월

출근하니 책상 위에 의료보험 카드가 놓여 있다. 요즘엔 병원에 가도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의료보험 카드를 안 가지고 다니게 되니 서랍 구석에 넣어두었는데 펼쳐 보니 뭔가 허전하다. 그렇구나. 새로 발급된 보험 카드였어.

조○○, 조○○, 이○○, 한○○. 이렇게 나란히 올라있던 자리에 올 엄마가 빠져있다. 엄마 이름이 지워져버린 카드는 엄마의 부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도, 의료보험 카드에도 올 엄마는 없다. 사망 신고를 하고 오던 날, 세상에서 엄마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 같아 차마 빈칸을 메울 수 없었는데... 이제 정말이구나, 올 엄마는...

2020년 8월

엄마... 오늘은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 바람에 마당 대나무 잎이 서걱서걱 소릴 내며 흔들려요. 빨강게 폈던 목백일홍 꽃이 맑은 물이 담긴 돌절구 위로 떨어져 꽃우물이 되었어요. 새벽에 잠이 깨 이마에 팔을 얹고 누웠는데, 갑자기 목이 떼어났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한참을 앓았다가 엄마~~ 엄마~~ 엄마~~ 거기도 바람이 선들 하니 부나요?



## 할머니의 코카콜라

이예나 소망상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이별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양친 집안 모두 장수하는 가족력 덕분에 서른 중반이 될 때까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한 번도 가족과의 이별을 겪어보지 못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죽음이 나에게 처음이었고 그만큼 충격도 컸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를 봉안당에 모신 뒤 집에 돌아온 이후 얼마간은 할머니의 죽음이 실감 나지 않았다. 매주 교회 예배를 마치고 들르던 친정집 어디에도 할머니가 없었고, 할머니를 보러 당번을 정해 주일마다 놀러 오던 작은엄마며 고모들이 보이지 않아도, 다리가 불편해 늘 집에만 계시던 할머니의 단짝 친구 강아지 하루가 눈에 띄게 우울해해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도무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주일 예배 후에 습관

처럼 들른 친정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냉장고 한켠에 쪼르륵 놓여 있던 먹다 남은 코카콜라 세 병. 휴지 한 칸도 아껴 쓸 만큼 알뜰했던 할머니가 탄산음료는 한 번에 마셔야 한다는 엄마와 나의 잔소리에도 늘 한 컵씩만 따라 마시고 뚜껑을 꼭 잠가 냉장고에 넣어두던, 할머니의 코카콜라가 거기 있었다.

아아, 우리 할머니.

이제 우리 할머니를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할머니는 항상 부엌 식탁 의자에 거실 쪽을 바라보는 자세로 앉아 계셨다. 옆에는 늘 짚고 다니는 보행기를 세워둔 채,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웃고 떠드는 우리를 항상 물끄러미 쳐다보셨다. 식구들과 생활 패턴이 잘 맞지 않아 어떨 때는 그 식탁에서 혼자 식사를 하시기도 했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굳이 보행기를 짚고 본인이 드신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둔 뒤 그 자리로 돌아와 앉아 또다시 우리 쪽을 쳐다보셨다.

그도 아니면 할머니는 할머니 방 침대에 누워 불을 끈 채 드라마를 보시곤 했다. 지상파 3사 방송국의 일주일 드라마 스케줄을 꿰고 있을 만큼 할머니는 드라마의 광팬이었다. 어찌다

텔레비전이 망가지거나 하면 세상이라도 무너진 듯 바로 작은 손녀나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쳐 달라고 얘기할 만큼.

생각해 보면 할머니는 그저 말동무가 필요했던 것 같다. 우두커니 식탁 의자에 앉아 거실 쪽을 바라보실 때도, 혼자서 식사를 하실 때도, 방에 누워 드라마를 보실 때도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를 꽤 오래도록 기다렸던 것 같다.

일상이 바쁘고 지쳐 늘 그 자리에 있던 할머니를 잊고 지내다 가끔 짬을 내어 할머니 곁에 앉으면 할머니는 그야말로 얼굴이 활짝 피며 함박웃음을 짓곤 했다. 평양이 고향인 할머니를 위해 내가 가끔씩 선보이던 이북 사투리 개그에는 그야말로 숨이 꼴딱 넘어갈 정도로 소녀만치 깔깔 웃음을 터뜨리셨던 것이 기억난다. 그리고 보면 우리 할머니는 그 연세에도 웃을 때 보이는 이가 옥수수알마냥 가지런하고 튼튼한 것이 참 예뻐는데.

할머니의 이야기엔 늘 레파토리가 있었다. 소싯적에 평양 시내에 한 번 뜨면 온 동네 남자들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평양에 보름달 떴다” 할머니의 미모를 찬양했다는 이야기부터 우리 아빠 어릴 적에 고뿌에 사이다 담아 팔던 영감님이 동네에 오면 아빠가 특유의 느릿한 말투로 “감~~~ 사이~~~ (영감

~~ 사이다~~~)” 했다는 이야기, 나와 내 동생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할머니가 손을 잡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새한병원 애기도 해 주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발소 사인도 보여 줬었다는 이야기까지.

평양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딸내미로 유복하게 자라다가 전쟁통에 월남하여 갖은 고생을 겪고 할아버지를 만나 또다시 긴 긴 세월 마음고생 하며 4남매를 키워낸 할머니에게 삶의 행복했던 순간은 모두 과거에만 존재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노년에 넘어져 다리를 다치면서 십여 년을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안에서 식구들만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이 할머니에게겐 힘들고 괴로운 기억일 뿐이었기 때문일지도.

굴곡지고 긴 인생을 살면서 하도 속 답답한 일이 많았기 때문인지 할머니는 코카콜라를 참 좋아했었다. 언젠가 왜 콜라가 좋으냐고 묻자 마시면 속이 뻥 하니 뿔려서 시원하다고 대답하던 할머니의 약간 서글썩던 얼굴이 기억난다. 회사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연애하며 사회생활 한답시고 할머니와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으로 나는 생각날 때마다 콜라를 사 들고 집에 갔었다. 할머니가 콜라 뚜껑을 ‘탁’하고 따서

꿀꺽꿀꺽 시원하게 한 모금 마시는 걸 보면 할머니를 하루 중 일 혼자 있게 했다는 죄책감이 조금은 같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으니까.

할머니가 내 곁을 떠난 가을날, 지나가다 편의점에 진열된 코카콜라만 봐도 이렇게 할머니가 보고 싶을 줄 알았더라면 그때 조금 더 자주, 더 오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할머니 품에 안겨 볼 것을 그랬다. 내가 할머니의 코카콜라가 되어 드릴 걸 그랬다.

아무리 원해도 그럴 수 없는 지금은,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슴 답답한 사연과 서글픈 사건이 많았던 할머니가 천국에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보고픈 우리 할머니가 건강히 잘 지내다가 언젠가 내가 가서 할머니를 부르면 다시 그 옥수수처럼 가지런한 이를 보이며 활짝 웃어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 보고 싶은 어머니

김병국 **민음상**

어머니!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저희 곁을 떠나시고 그날 이후 저희 옆에 빈자리가 너무 커서 웃음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한 해, 두 해 어느덧 16년 세월이 흘러가고 이젠 꿈에서도 못 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식들 삼 남매 키우시느라 늘 노심초사 잠도 못 이루시고 아픈 아들 손자까지 등에 업고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렸을 땐 어머니의 밥이 당연한 듯 먹었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었음을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시계는 고장도 안 나고 무심하게 흘러가니 어느덧 자식들도 60살이 다 넘고 머리는 흰 파 뿌리로 변해 가는데 그 옛날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 한 죄 가슴에 사무칩니다.

다리아파 절뚝거리며 걸으실 때도 회사 일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도 못하였는데 어느덧 저희가 나이 들어 다리아파 병원 다니니 이제야 그 고통 얼마나 심하셨을까 눈물이 앞섭니다. 자식들이 커가며 저희에게 말할 때 내가 왜 그때 어머니께 저리 대했나 후회가 됩니다. 사는 것 누구에게나 힘들다고 하지만 자식 사랑 가득했던 그 정성 이제야 느끼게 되니 목메어 울어도 용서가 되겠는지요? “사랑합니다”라고 살아계실 때 못 한 한마디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용서를 구합니다. 꿈속에서나마 보고 싶고 불러보고 싶은 그 한마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 한 것이 목이 메고 가슴이 아파서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갖은 근심 천국에선 다 잊으시고 자식들 불효를 용서해주시고 부디 마음 편히 영면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Dear. 아빠

백향은 믿음상

아빠 안녕~ 향은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막내딸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할 말이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아빠한테 편지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는 매년 쓰고 있는데, 늘 괜히 떨리네요!)

19살이었던 내가 이제 25살이나 먹었다고 어울리지도 않는 존댓말 좀 써보려 했더니 어색해서 안 되겠어요.

다시 천방지축 귀여운(강조) 막내딸로 돌아간다!!

아빠, 그동안 내가 썼던 편지 기억해? 처음엔 아빠 대신 엄마와 가족들을 잘 지켜주겠다 다짐했었고, 작년엔 졸업을 앞두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이야기했었지. 올해는 어떤 소식이 있을지 궁금하지? 내 기도 듣고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맞아요, 나 취업했어요!

어릴 때부터 꾸던 꿈을 이뤘어. 나는 나중에 작가가 될 거라

고, 방송작가 할 거라고 그랬지!

사실 정말 취업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오랜 꿈이었는데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았어. 아무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사회로 나가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 있지?

아빠라면 내 고민에 어떻게 말해줬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해보기도 전에 겁먹고 포기하는 거 아빠가 제일 싫어하니까! 하고 도전했지. 첫 면접에 불을 줄은 몰랐는데... 합격! 내가 가족들과 선생님들의 품에서 벗어나, 진짜 사회로 나간 순간을 아빠도 직접 봤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하늘에서 그 누구보다 기뻐했겠지?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야. 면접 보기 전날 아빠를 만나고 왔고, 아빠가 가장 좋아했던 KBS에 다니고 있어. 첫 직장, 첫 프로그램이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이라니 신기하지!

그리고 나 작가가 되고 싶은 이유로 아빠 이야기를 썼거든. 우리 아빠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 분인데, 일하느라 못 가셨다고. 매주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보면서 재밌는 거 틀어 달라 조르는 나한테 "아빠는 오늘 저곳으로 여행 가는 거야" 하셨다고.

그런 방송을, 그런 글을 쓰고 싶어서 작가가 되고 싶다고 적었어. 힘든 하루를 보냈을 누군가가 내 방송을 보고 잠깐이라

도 숨통이 트었으면 좋겠다고.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아빠 나는 꼭 내 글을 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훅! 들어오는 글을 쓰고 싶어. 그렇게 누군가를 담담하게 위로하고 싶다. 내 목표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 나중에 내 첫 책이 나오면 아빠한테 제일 먼저 가져다줄게. 약속해! 사인도 원해? OK!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처음 겪어보는 사회생활이 무섭기도 하지만 나답게,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어요. 다 예수님과 아빠의 든든한 보살핌 덕분이예요.

아참참! 아빠의 예쁜 마누라,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언니랑 형부도 여전해. 어찌나 장난꾸러기들이지, 동생이 두 명 있는 거 같기도 하다니까? 이모도 항상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요! 우리 가족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지켜주세요.

우리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다. 어버이날 미리 축하해요! 날 아주시고, 착하고 씩씩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빠!

- 막내딸 향은 올림



## 오늘은 4월 1일이에요... 예정대로라면 오늘 출근하는 날인데...

손현영 믿음상

오늘은 오빠한테 다녀왔지요. 4월 1일.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사 복귀하는 날이었는데, 오빠가 그곳에 있으니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많은 사람 중 왜 오빠인 건지 다시금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대체 왜. 너무도 좋은 나날만 가득했고 너무나 꿈꿔온 계획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생각에 부풀었던 그 행복들이, 모두 멈춰 버린 이 시간이 어찌나 슬프고 마음이 찢어지던지.

오빠는 천국 생활 어때요? 더 이상 신경 쓸 일들도 없고 스트레스받을 일도 없고 화나는 일도, 슬프게 하는 일도, 짜증 나는 일도 전부 없죠? 너무 많이 아팠고, 너무 많이 힘들었고, 너무 많이 참고 견뎌준 그 귀하고 귀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오빠가 있는 그곳 천국에서 모두 보상해 주시고 계시리라 믿으며

감사하게 되네요.

그동안 나는 주님께 감사가 없었어요. 내게 오빠가 없다는 건 내 전부가 사라졌다는 거고, 내 심장을 도려냈다는 거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란 걸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이라서. 그런데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서로 꿈쩍이도 사랑했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에게 너무도 잘했다. 그 거면 됐다는 마음...

알아요. 우리 두 사람 서로 너무 사랑했고 아껴주고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함께하며 부부라서 더없이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 그 기억과 추억으로 앞으로를 견뎌내고 몇 배의 시간이 흐르더라도 잊지 않고 받은 사랑으로 힘을 내라고 다독여 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의 짧은 연애 기간 1년, 부부로 맺어진 기간 9년, 도합 10년. 그 짧다면 짧은 시간, 그 길다면 긴 시간 덕분에 나는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오빠에게 넘치고도 남는 사랑을 받아서 살아내고 견뎌내 보려 해요.

부부 일심동체라고 매번 “하늘나라 갈 때 함께 가자”, “다시

태어나도 부부하자”라고 했던 말 기억하죠? 지금은 바로 오빠를 따라갈 순 없겠지만 언젠가 나도 오빠 뒤를 따라가겠죠? 그때까지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바로 뒤따라오지 않았다고 섭섭해 말아줘요…. 그리고 나 잊지 말아요. 천국 생활이 너무 좋고 나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오빠 따라 천국 가는 그날 우리 만나서 못다 한 이야기 나누며 다시 부부의 연을 맺읍시다. 약속해요.

너무 사랑하는 내 사랑, 내 전부, 내 심장, 내 껌, 내 새끼, 내 신랑, 내 여보 김태환. 오늘도 어제보다 더욱 많이 사랑해요! 오빠의 사랑 듬뿍 받은 나 손현영. 오늘도 오빠한테 고백합니다. 오빠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요!!



##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입니다

김하린 **믿음상**

할아버지, 저 첫째 손녀 하린이예요. 아직 할아버지 번호는 그대로 있다길래 한번 보내볼게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우선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지금 전해드리려던 말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에요. 아빠에게 문자로라도 보내서 전해볼까 하다가 다음에 찾아가면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늦어 버렸네요. 정말 전해드리려던 말은 저에게 할아버지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좋은 목사님이었을 거고, 누군가에겐 시아버지, 누군가에겐 남편이나 아빠로, 불렀었고 기억되는 단어들은 다르지만 항상 할아버지는 그 칭호 이상의 좋은 사람이셨다는 걸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많

은 사람에게 좋게 기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모든 장례가 끝났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가고 싶어 하 시던 교회도 들렀어요. 봉안당에서 모두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넓은 칸에 예쁘게 모셔 드렸어요. 아빠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게 많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화장할 때 나온 의료용 핀을 보니깐 우리 할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티도 별로 안 내셨구나 싶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들 다 할아버지가 우리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으니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편히 쉬시고, 기도 맘껏 하시고, 예배 많이 드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고 싶은 일도 모두 하셔야 해요!

12일 날 눈이 예쁘게 내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하늘나라 가시는 13일 날 마법같이 되게 따뜻했거든요. 따뜻하게 잘 지 내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 하린 올림

\* 이 글은 김중희 할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소천하신 후,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손녀 김하린 양이 모든 장례를 마치고 할아버지께 보낸 문자입니다.



## 하나의 밑알이 되어

이혜진 믿음상

끝이 없을 것만 같은 터널 앞에 털썩 주저앉은 내 무릎은 초라하게 후회와 두려움으로 오늘오늘 떨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툭툭 떨어질 때마다 내 다리와 심장은 쿵쿵 누군가 내려치는 것만 같습니다.

항상 큰 사람, 강한 사람 나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가 수술을 하시는 날입니다. 악성 뇌종양 중에서도 지독한 나쁜 세포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기억, 운동신경, 언어능력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술해도 살 수 있는 시간은 1년뿐…. 스스로 잘 움직이지도, 기억하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도 그 1년을 더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털썩 주저앉은 내 무릎. 두려움 속에 떨떨 떨고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야, 이게 끝이 아니잖니….”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 죽음과 삶의 문턱에

서의 공포는 마치 하늘나라에서 심판대에 서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받기 위한 대기실과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분께 부르짖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러려면 알아들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도 가야 합니다. 모든 신경을 보호해주시고,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빠에게 우리 가정에 기회를 주세요.

아빠가 수술하시는 날! 하나님은 여의도순복음교회 3040팀, 유아부 교사, 직장 동료, 지인들까지 다 합하여 기도의 용사 300여 명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수술이 끝나 회복하는 시간까지 시간을 짜서 릴레이 기도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도 수술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의사는 신경 MRI 사진을 보여주며 신경에 걸쳐있는 악성 세포들을 제거하려면 운동신경도 건들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팔·다리 마비, 언어도 말소리만 내실 수 있고 아주 어린 시절 기억만 하실 뿐 딸들을 기억하지도, 그렇게 예뻐하는 손녀도 기억 못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빠가 교회에 가실 수 있도록 팔 다리 어

디에도 마비가 없게 하시고 언어능력도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셔서 아빠가 1년여 동안 정말 말씀 필사까지 하시고 성경도 읽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빠는 그렇게 수술하시고도 건강하게 오히려 더 환한 얼굴로 1년 6개월 우리 가정을 위해 밀알이 되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매일 예배를 드려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함께 기도해준 중보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빠를 통해서 가정을 사모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역사,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 주변을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뜨거운 역사, 아빠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들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역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아빠가 편찮으시면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마운 그리고 보고 싶은 우리 아빠!!!! 지금도 우린 그 시간을 되새기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밀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해 담는 다리

박지연 화평상

봄날 아빠와 함께 거닐던 개천 길을 걸어봅니다 날이 좋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입니다. 살며시 귀에 이어폰을 끼며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빠와 함께 들던 음악을 찾아보며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벤치에 앉아 가만히 듣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음악이 하나로 조화롭게 보여 한 편의 짧은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웃어보았습니다.

바닥에 시선이 머문 곳곳에 짧은 잡초 위 솜뭉치들이 보입니다.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니 꼭 눈이 내린 것처럼 쌓여있는데 봄이 나에게도 왔다고 꽃가루가 소복이 쌓여있는 것입니다. 괜스레 한번 웃어보았습니다. 바람이 훑히고 불어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나서 휘이휘이 손사래를 쳐 꽃가루를 날려봅니다. '으음, 아빠 닮아 알레르기겠지' 하고 툭툭거리려 봅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건지 아빠 생

각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의 투병으로 아빠는 당뇨 합병증을 앓게 되었고 다리를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어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걸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작은 일상과 당연한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참을 걸어보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해 담는 다리가 보입니다. 해 담는 다리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아침햇살과 저녁의 노을빛을 고스란히 담은 풍성한 다리입니다. 힘든 마음이 있을 때는 이 다리까지 걸어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힘들어도 햇살처럼 빛나라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넓은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렸을 적 아빠 손 잡고 이렇게 걸었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는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곳에 서는 마음껏 걷고 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고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고 보통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하게 다시 만날 때 우리 손 잡고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오늘도 기대하며 다시 집으로 걸어갑니다.



## 하늘로 홀연히 떠난 당신

현기숙 화평상

당신께 눈물로 써 내려가는 이 편지가 하늘나라로 이사 간 당신께 꼭 전달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당신 떠난 지도 어언 7년째네요. 뭐가 그리 바쁘셔서 나만 남겨놓고 떠나셨나요. 잘 있소, 잘 가시오.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떠난 당신….

작년 12월에 내가 몹시 아픈 줄 아셨나요? 꿈속에 나타나 평소에 짓던 표정 없는 얼굴로 묵묵히 바라만 보다 사라진 당신이 너무 야속하기만 했답니다. 그래도 보고 싶군요. 여보, 허공에다 대고 몇 번이고 불러보아도 대답 없는 메아리뿐이네요. 78년도 제주도 신혼여행 때 유채꽃이 만발한 꽃 속에 파묻혀 찍은 사진만 남았구려. 3월 30일 결혼기념일에 당신이 옆에 있었다면 당신이 좋아하던 오장동 냉면이나 회덮밥이라도 함께

먹었을 텐데 그날은 병실에 갇혀 혼자 쓸쓸히 뜻깊은 하루를 보냈답니다.

우리 아이들 결혼식 때 혼주석에 쓸쓸히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을 텐데 어찌죠? 많이 외롭고 쓸쓸할 거 같네요. 그래도 그때는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실 테지요. 힘겨운 삶 속에서 용기 내어 남은 여생 열심히 살다 갈게요. 여보, 나와 우리 삼남매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천국은 아름답지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보장되지 못했다면 불쌍한 인생일 텐데 천국의 부활을 믿고 사모하며 살다 갈게요. 여보, 우리 이 땅에서 못다 한 일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 이루어 봅시다.

당신의 아내가…



## 메모리얼파크가 주는 감사함

문소연 화평상

아빠... 오랜 투병 생활에 힘드셨을 우리 아버지. 고통 없는 천국에 잘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생전 교육·연구를 위해 장기 및 시신 기증을 약속하셨는데, 코로나로 사정상 성정을 헤아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못 내고 손가락조차도 움직이지 못하셨지만 촉촉했던 눈망울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불가항력 코로나를 핑계 삼아 무 빈소로 후딱 치러 버린 건 아닌지 시간이 지날수록 덧없는 후회와 참회가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명복을 기를 자리도 없이, 위로할 시간도 없이 아빠의 생전 유언대로 훨훨 뿌려드리려 했을 때 가족 중에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에 봉안을 고집해주고 안내해준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리도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사시사철 교회 교통봉사로 청춘을 보내셨고 늘 찬송가와 말씀 묵상을 즐겨 하셨는데... 영은

천국에 계셔도 남겨진 가족들이 아빠의 영정을 거룩한 이곳 메모리얼파크에서 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빠, 아직은 이 두 글자를 입 밖으로 되새겨도 눈물부터 쏟아이지만, 힘들고 모진 세월 잘 버티고 길러주신 은혜 결코 잊지 않고 바르게 잘 살겠습니다.

아빠... 사랑, 사랑합니다!!





## 그립고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에게

 최경재 **화평상**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머니가 천국으로 가신 지가 어느덧 40여 년이 흘렀네  
요! 그동안 추모도 못 하고 이 불효자식은 졸수인 아흔 살의 나  
이가 다가옵니다. 어머니가 낳으시고 키우신 우리 형제들도 모  
두가 떠나가고 6·25 전쟁 중에 낳으신 막내딸과 이 둘째 아들  
만 아직 살아남았습니다.

지나간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에 아버님과 혼인하신 새색시가  
찢어지는 가난을 벗어버리고 전쟁 중인 낯설고 물설은 일본 땅  
으로 와서 오직 지아버만을 믿고 의지하시며, 아버지의 내조를  
하시고 우리 일곱 남매를 키우시면서 그 엄청난던 미군기의 폭  
격을 견디며 우리 가족들의 생존을 위하여 강인하게 살아오셨  
던 우리 어머니를 어렸던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아 그리운 나의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안고 그립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나 너무나  
가난했던 조상님들과 일가 친족들의 삶 속에서 또다시 우리  
아홉 가족의 고난의 여정이 이어졌지요! 불쌍하고 가련하신 우  
리 어머니! 벗어나려고 했으나 야속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  
게 또다시 고난의 길을 주셨습니다.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발발하여 가족과 함께 피난 생활  
을 하면서 어머니의 시련이 또 시작됐지요! 모진 피난 생활 속  
에서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지계를 지시고 이산 저산을 누비며  
떨감을 구하려다가 넘어지고 찢어지면서도 한마디의 불평 없  
이 오직 가족들을 위한 신념으로 살아오신 강인하신 우리 어머  
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글  
썽이네요.

또 수복한 후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동네 주물공장에서  
새빨간 쇳물과 일하시던 그 모습이 이 자식은 잊지를 못합니  
다. 힘든 고통과 아픈 고통을 모두 참고 묵묵히 살아오신 가련  
하신 우리 어머니를 그때가 떠오를 때면 설움이 복받칩니다.

어느 날 불운하게도 낙상을 하시어 손목 골절의 중상을 당하

셨을 때 병원 한 번 모시고 가지도 못하고 이웃의 도움으로 민간요법을 하며 그 아픈 손목을 옮겨주시고 살아오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하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부끄럽고 죄송함을 이 불효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1980년 12월 22일 직장에서 일하느라 마지막 가시는 우리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한 나를 어머니는 용서하여 주실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운 어머니! 비록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영혼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때의 모든 서운하셨던 일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지상에 남은 어머니의 자손들 모두가 각자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강건하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역습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며, 위대하고 강하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께 찬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내가 살아생전에 그럽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께 이 글을 올립니다.



## 우리의 봄을 기다리며

김선화 화평상

재형아 잘 지내고 있어? 네가 떠나고 벌써 너의 생일도 한번 보냈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설렸던 기념일도 보냈네. 늘 내 시간은 멈춰있는 것만 같았는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난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

우리의 첫 번째 봄 기억나? 서로 설레며 좋아했던 그 따뜻한 봄엔 온 세상이 우리 것만 같았고 행복했잖아.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하고 꿈꾸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봄도 이렇게 행복할 거라 믿었었잖아. 그래서 그런가 봐. 꽃이 피면 너와 함께 했던 그 순간들도 하나하나씩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에 너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실려 오는 것 같아.

이 따뜻한 햇볕 아래서 우리 참 많이 웃었는데,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며 우리 참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너도 기억나지? 너무나 짧게 왔다가는 이 계절이지만 나는 이 봄날의 행복했던 추

억으로 일 년 열두 달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의 봄은 왔는데 함께했던 그 약속들은 아직도 그때 그 봄날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사랑하는 재형아.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는지,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또 내가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다시 만나는 봄날에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그때까지 너 만나러 가신 어머님 손 꼭 잡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있어야 해. 어머님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알았지? 우리 천국에서 만나기로 한 그 약속이 이뤄지는 날에는 울지 말고 꼭 안아주는 거야. 알았지?

우리의 그 봄날이 올 때까지 나도 열심히 잘 지낼게. 잘 버티 볼게.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그리고 너무나 보고 싶어. 나의 가장 빛나는 계절, 우리의 행복한 봄날을 기다리며 인사할게. 사랑해 재형아.



## 하늘의 멋진 경찰관, 우리 할아버지께 손녀가 보내는 편지

 김윤명 화평상

할아버지, 저 윤명이에요. 할아버지의 기쁨이자 자랑인 손녀 윤명이 할아버지께 오랜만에 편지로 인사드려요.

할아버지, 천국에서 할머니랑 잘 지내고 계시나요?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을 때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그 중학생이던 제가 어느새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었고, 이젠 대학교를 졸업해서 26살의 현재의 제가 서 있네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인생에 특별한 순간이 있을 때 '지금 이 모습을 할아버지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살면서 절망적인 순간에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는 '지금 내 곁에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등지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유일한 제

편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이런 저를 늘 무한한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셨어요. 제가 철없던 시절에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전보다 더 넓은 세상을 나아가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느꼈던 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었어요.

제 곁에 계신다는 것과 무한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못해 드렸던 것들만 더 생각나요. 지금이라도 더 호강시켜드리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제 곁에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대해 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돼서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을 쳐요.

할아버지, 하나님의 품은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은 따뜻하신가요? 그곳은 외로움도 없는 곳일까요?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할아버지, 천국에서는 부디 평안과 안식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외로운 삶을 사신 우리 할머니께서도 하나님 품에서 외로움도 슬픔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진심으로 두 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선 경찰이라는 자부심과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늘 배우고 싶어요. 저는 어

쩌면 끈기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에 대해 열정이 쉽게 생기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멋진 경찰이셨어요.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셨고, 새벽에 사건이 터져도 불평 한번 없이 묵묵히 일하신 멋진 경찰이세요. 다시 태어나셔도 경찰을 하고 싶으시다는 우리 할아버지... 하늘에서도 우리 할아버지는 여전히 멋진 경찰이세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머물렀던 할아버지. 지금은 비록 할아버지가 계신 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는 결코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신 적 없는걸요. 할아버지께선 언제나 늘 제 마음속에 계셨어요. 그렇기에 저는 할아버지와 아주 먼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할아버지, 저는 과거에서도 그리고 미래에서도 늘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지금도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를 보살펴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부디 제 마음속 편지가 하늘에 닿길 바라요. 행복하세요. 할아버지.

-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 올림



## 사랑하는 우리 아빠 성수 할아버지

 박상희 화평상

벌써 8년이나 지났나 봐. 사랑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유가 2학년이야. 사랑이는 이태호랑 똑같이 생겼는데 성격은 그냥 나야. 겁도 없고 당차고 좋아하는 것만 잘해. 한 달만 늦게 갔어도 사랑이 얼굴은 봤을 건데 유는 여성스럽고 소심하고 근데 공부 잘해ㄷ 좋지?

아빠, 나는 아빠랑 마지막에 말도 못 해 보고 그렇게 아빠 보 내서 마음에 아직도 응어리라고 해야 하나? 한 번씩 꿈에 아빠가 나오는데 항상 깔끔하게 양복 입고 있어서 마음이 한편 좋아.^^ 아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보고 싶고 슬프다.

애들 크면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식목일이라고 화분 갖고 오면 나는 아빠가 영화국민학교에 목련나무 심어줬는데 하고 생각나고... 나 지금 이태원 그만두고 편의점 하거든. 근데 잘해ㄷ 어머님 도와드리다가 잘해서 한 개, 두 개 늘려서 잘하

고 있어. 그게 다 아빠가 하늘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있어서라고 생각해.

아빠 나는 애기 때부터 지금까지 잘 살기도 해보고 또 어려운 상황도 겪어보고 아빠 돌아가시기까지 힘든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았고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천국에서는 내가 엄청 잘 먹고 잘 가르치고 잘 살 수 있게 잘 보살펴줄게. 오래오래 같이 있어 줄게. 잘 지내고 있다가 만나자 아빠.

세상이 좋아져서 핸드폰에 아빠 사진하고 아빠가 유랑 놀아 주면서 “유야~” 하는 목소리 나오는 동영상이 있어서 애들이 성수 할아버지 잊지 않고 있어. 아빠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음으로 더 많이 아빠 기억하니까 너무 쓸쓸해 말고 조금만 기다려. 사랑해 아빠.

다음 주 아빠 생일이네. 만나러 갈게. 기다리고 있어. 갑자기 생각난다. 오산리기도원. 엄마랑 금식기도 왔다가 배고픈 거 못 참아서 몰래 아빠 빵튀기 먹었다고 했던 곳ㄷ 빵튀기 사갈까? 아니다, 내가 애들이랑 먹으면서 아빠 생각 많이 하면서 갈게.



## 그립고 그리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이지은 **화평상**

곧 있으면 아버지께서 우리들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신 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전 아직도 아버지 생각이 나면 눈물이 왈칵 차올라요. 제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이 넘쳐나요.

제 아이들의 가슴에 귀를 대고, 아이들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는 행복한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대고 아버지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던 그 순간이 떠오르고, 아버지의 심장이 멈추었던 그날 아버지를 부르던 제 목소리에 몇 번이나 심장 박동이 돌아오던 그 간절했던 순간이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저는 아직도 아버지의 영업장이 있던 그 골목에 들어서지 못해요. 그곳에는 진작 다른 영업장이 들어서고 모든 것이 바뀌어있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서는 제 눈에는 신문을 보시며 자리를 지키고 앉아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있어서 눈물로 가

득 차올라요.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시장에서는 제 귀에 닿은 “아빠!”라는 낯선 이의 말 한마디에도 쌓여있던 그리움이 터져 왈칵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와 순종만을 새기며 하루하루 마음 즐겼던 그 날들의 기억….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시고 주님 곁으로 데려가셨지만, 그 또한 주님의 뜻이기에 그리고 그 뜻에 얼마나 큰 사랑과 예비하심이 있으셨는지 나중에야 깨달아 알게 되기까지 어리석은 저는 눈물과 그리움으로 제 가슴 속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가는 듯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차고 넘치는 딸이라고 미안해하지 말라며 다독여주시던 따스함, 그 힘으로 저는 저의 오늘을 지탱하고 버텨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믿고 있기에, 아버지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잘 살아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눈물을 밑거름 삼아 오늘의 꽃을 피우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어요.



##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순자 화평상

그동안 매일 조석으로 기도할 때마다 당신께 우리들의 일상을 전해왔지요. 그러다 오늘은 종일 비가 내려서 1년 만에 포펜을 들어 당신께 기쁜 소식을 전하렵니다. 그동안 하늘나라에서 자녀들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잘 지켜봤으리라 믿어요. 당신은 깨끗한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셨지요? 여기 세상에는 코로나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산과 들에는 벚꽃과 진달래, 개나리꽃들이 만발하여 꽃잎이 비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여의도 우리 교회 주변에도 우리 아파트 뒷산에도 모든 꽃들이 만발했어요. 예전에 딸이 뉴질랜드 유학 가기 전 우리 네 식구 교회 예배 마치고 여의도공원을 산책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던 그 날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추억의 꽃놀이가 되었네요. 그날

의 꽃놀이 가족사진을 확대하여 거실에 걸어놓고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아파트 뒷산 길을 두 아들 유치원 때 소풍을 따라갔던 것 외에 한 번도 뒷산을 가보지 못했죠.

당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거친 산등성이를 열심히 뛰어다니며 운동을 했었죠. 어느 날 나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 때도 매일 바쁘게 장사하며 살아오느라 산에 갈 시간이 있으면 잠시라도 눕고 싶은 마음으로 싫다 하고 함께 가주지 못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당신이 떠난 후 이제 와 생각하니 그때 같이 따라가 줄 걸~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며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미안해요. 그때는 등산로가 울퉁불퉁 험한 산길이라서 다니기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50여 년 만에 뒷산을 올라가 보니 등산로를 돌레길로 꾸며서 나무 계단, 나무 바닥 짚으로 엮어 만든 산책로가 너무나도 잘 꾸며져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10여 번 올라가 보면서 잘 꾸며진 등산로를 오를 때마다 더욱더 당신이 힘들게 뛰어다녔던 그 길이 떠올라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 좋은 산책로를 지금 당신

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러지며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동안 내가 얘기해왔듯이 어렸을 적 집에 농사일이 많아서 일하느라고 중학교 졸업 후 진학을 못 했던 한을 풀었어요. 딸, 아들의 뒷바라지로 고교를 마치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녀, 올 2월 16일 졸업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류를 접수했어요. 2주 후면 발급된대요. 글구 졸업 전 2월 초부터 집에서 5분 거리 어린이집 돌봄으로 처녀 시절부터 집안일이 바빠 직장 한 번 안 다녀본 내가 난생처음 취업을 하게 되어 조그만 용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아들에게 밥을 얻어먹기만 하다가 월급을 탔노라고 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과 식사를 했죠.

또 그동안 신세 졌던 친구들과도 식사했구요. 늦깎이로 공부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 나이도 이제 70이 되었잖아요. 글구 천안 딸도 2월 17일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첫째 외손주 5학년, 둘째 3학년, 셋째 외손녀 1학년 입학, 넷째 손주 어린이집에 다니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도 방송국 차장으로 잘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가

게 재개발공사가 완공되어 올 1월 30일 전철역 바로 뒤 삼성래미안 아파트 남향으로 로얄층에 당첨되어 입주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 9살인데 뉴질랜드 유학 간 지 1년이 되었네요. 앞으로 1년 후 돌아온대요. 그 나라는 청정지역이라 코로나도 없어서 잘 지내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 올해 좋은 일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요. 내년에 또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만 줄일게요. 잘 있어요~ 감사해요~!

## 심사평 (2020)



(재)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에서 ‘추모의 글’을 공모하는 것도 어느덧 네 번째가 되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응모해주셔서 선자들의 마음이 매우 기뻐다.

무엇보다 다른 봉안당이나 추모 시설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추모의 글’ 공모가 한 해 행사로 굳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의미 있고 아주 보람찬 것이다.

59편 중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글들은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았다. 어찌 타인의 슬픔의 크기를 가늠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응모자들의 글을 읽는 내내 마음이 저렸고, 점수를 매기는 일이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런 과정을 거쳐 마지막까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든 작품은 국민아, 김슬기, 김진주, 이수혜, 전상열, 오정환 씨 등의 글이었다.

먼저 국민아의 글은 진정성이 돋보였다. 대부분의 다른 응모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생전 모습을 묘사한 부분에서 특이

한 점은 없지만 고인의 부재를 이겨내고자 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들이 눈길을 끌었다. 다시 태어나도 아빠의 딸로 태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눈물겨웠다.

김슬기의 글 또한 아버지를 보낸 딸의 추모 글이다. 세상의 모든 아들딸들은 부모를 여의고 나서야 그 큰 자리의 부재를 깨닫게 된다. ‘아빠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문장은 홀로 서기를 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좀 어른스러워지겠다’는 화자를 우리도 응원하기로 했다.

김진주의 글에서는 물씬 신앙심이 느껴진다. 문체도 매우 안정감이 있어서 읽는 이에게 그 뜻이 잘 전달되었다. 만약 진실한 신앙심으로 고인의 부재를 이겨내고자 한다면 이 글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화자의 소망처럼 우리도 그녀의 글을 소망상에 부치기로 했다.

이수혜의 글은 작품성이 돋보였다. ‘아빠의 손’을 소재로 아버지에 대한 알싸한 기억을 끄집어내는 독특한 글솜씨가 탁월하고 감각적이다. 마지막까지 사랑상과 소망상 사이에서 고민했음을 굳이 적어둔다.

전상열의 글에서는 아들을 잃은 아픔이 절절하다. 모호함과 감정의 절제가 좋은 글쓰기의 출발점이라면 전상열의 글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소중히 사람을 잃었을 때의 감정이 이처럼 고스란히 글로 표현될 수 있을까? 진심으로 위로

를 보낸다.

오정환의 글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절절한 사연이다. 슬픈 이별을 억제하고 20여 년 세월을 장애이들을 위해 헌신한 이야기가 담담한 스토리텔링으로 감동적으로 엮여진다. 그 담담한 글에서 슬픔이 상당 부분 '승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안타까운 부성애가 투철한 신앙심으로 승화되어 생명의 온기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어 최고상인 사랑상으로 뽑았다.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 심사평 (2021)



‘추모의 글’에 대한 공모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상황이 그렇다 보니 좋은 추모의 글을 공모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조출한 시상의 자리를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여 편에 가까운 응모작들을 마주한 선자들은 진한 가족애와 절절한 추모의 글을 대하며 숙연한 마음이었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한 글은 백향은, 김병국, 이예나, 조혜경, 임혜선, 박춘희 씨 등의 글이었다.

심사항목은 작품성과 창의성, 가족애, 진정성, 신앙심 등으로써 각각의 항목에 차별된 점수를 주어 합계를 내는 방식인데 추모의 글에 응모한 모든 분의 애뜻한 글의 위력 앞에 우리는 여러 번 울컥하며 감정의 물결에 젖어 들 수밖에 없었다.

백향은의 글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방문했다. 어쩌면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에서 추모의 글을 공모하는 이유를 우리

는 백향은의 글에서 읽을 수 있다. 추모의 마음은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날을 정해 추모하는 것도 아니며 늘 고인을 그리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백향은의 글은 말하고 있다. 취업을 축하드리며, 바람대로 훌륭한 작가가 되리라 믿는다.

김병국의 글은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살아서 우리의 허물을 모두 덮어 주시듯 부모님은 떠나신 후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리라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믿음상에 올려놓는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에나의 글은 작품성이 돋보였다. 냉장고 한켠에 쪼르륵 놓여있는 먹다 남은 할머니의 코카콜라를 보며 할머니의 추억을 일깨우는 섬세한 감성이 유니크해서 사랑상을 결정하는 최종 순간까지 계속 마음에 남아 우리를 머뭇거리게 했다. 슬픔을 담담하게 누를 줄 아는 묘사력도 훌륭했다.

조혜경의 글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임종 후 4년 동안의 연작 추억의 글이다. 엄마라는 단어보다 우리에게 아프면서 정겨운 단어가 있을까? 읽는 동안 몽클한 슬픔에 젖어 들 수밖에 없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임혜선의 ‘서울댁 올 엄마’는 마치 긴 서사 소설을 읽는 느낌이였다. 그만큼 전체적인 완성도가 뛰어났고 ‘엄마의 가슴엔 얼마나 크고 깊은 구멍이 뚫리고 얼마나 짙은 우울과 슬픔이

스며들던 것일까?’ 이 표현처럼 엄마를 향한 따스한 온기가 느껴져 소망상에 뽑았다.

박춘희의 글은 70세를 넘긴 아들이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모곡(思母曲)이다. 살갓이 드러난 머리를 기억하며 어머니가 이고 다니신 그 짐은 삶의 무게며 외로움의 무게라며 안타까워하는 절절한 사연 등 고회를 넘기고서도 그리운 어머니의 흔적을 찾으려는 열정이 진솔하고 간절해 선뜻 그의 글을 사랑상에 부쳤다.

아버지, 어머니 또는 아들과 딸을 그리는 ‘추모의 글’을 읽으며 우리는 슬픔보다 희망을 얻는다. 그리고 그리움이 아름답다 느껴본다. 이를 일깨워준 모든 응모자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 김선옥 심사위원

전 KBS 라디오제작센터장, 경인방송 대표이사 전무

현 서울시인협회 부회장

시집 『오후 4시의 빛방울』, 『모과나무에 손풍금 소리가 걸렸다』, 『미지의 흰 새 알버트로스』

#### 천서봉 심사위원

현 이마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2005년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 『서봉씨의 가방』, 포토에세이 『있는 힘껏 당신』

##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 두 번째 이야기 |

초판 1쇄 발행 2021년 6월 18일

발행인 김윤배  
발행처 (재)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편집인 교회성장연구소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출작로 164  
전 화 031-957-1260  
홈페이지 [www.fgcmp.com](http://www.fgcmp.com)

ISBN | 978-89-8304-310-8